정책과제 2006-4

관광산업 복·융합화 촉진 방안

-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유 지 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and Tourism Policy Institute

Jiyun Yu, Ph. D.

Promotion Measures for Convergence between Tourism and Other Industry: focusing on Medical Tourism

관광산업 복·융합화 촉진 방안

–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유 지 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Korea Culture and Tourism Policy Institute

서 문

디지털 컨버전스, 산업간 융합, 소프트화 진전 등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침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관광을 매개로한 산업간 복융합화는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관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산업의 신 활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변 경쟁국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예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관광객은 한 사람당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지출하며 체제기간도 일반관광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다. 싱가폴 등 주변 경쟁국들이 '의료허브'구축을 목표로 의료관광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바로 의료관광을 통해 관광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이끌고 고부가가치 신 시장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변 경쟁국가의 의료관광 추진 실태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의료관광의 성장가능성 및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잠재력 분석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관계당국과 업계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가격과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의료관광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관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너무 미미하다. 한류를 타고 미용, 성형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의료관광국으로서 우리의 강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잠재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용, 성형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암치료, 외과적 수술 및 진단 방사선과 같이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적인 의료관광 시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것이다. 의료수준이 높은 아시아의 몇 몇 국가들만이 거대한 선진국 의료관광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우리도 빨리 뛰어 들어야 한다. 그 거대한 블루오션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관광 지도가 다르게 그려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송재호

요 약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관광행태가 다양화해지고 관광욕구가 다변화됨으로써 관광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특히 관광객의 인식의 변화와 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더욱 복합화되고 전문화된 관광상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음

○ 관광을 매개로한 산업간 복융합화는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관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산업의 재도약 및 신활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국(상해) 등 주변 경쟁국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예산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현재 세계적 트렌드인 '산업간 복융합'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광의 영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이 전략적으로 복융합화의 대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의료분야의 복·융합화의 촉진을 통해 관광산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신 상품화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간 복·융합화' 현상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촉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기존산업과 관광산업 간 복융합화의 효율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수립을 의료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2. 기대 효과

○ 관광의 영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결합을 통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증가하는 의료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시장을 창출함

II. 이론적 고찰

1.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개념 및 발전방향

○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을 농업, 임업, 축산, 수산 등의 1차 산업과 광업, 제조업 등 2차 산업과 연계시켜 기존 산업 간의 복·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임

○ 복융합화의 관광산업 발전방향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네비게이션(Navigation), 인터넷 등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의 접목이 두드러지고 3차산업간의 복융합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광산업에서의 복융합화 현상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경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전통적인 산업 분류를 넘어 +0.5차의 복합 산업형태를 만들어 낼 것임

2. 관광산업 복융합화 연관분야

○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인 의료관광은 현재 세계 많은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식품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음

○ 웰빙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며, 보양, 의료, 미용 등 건강 증진 관광, 자연 휴양 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관광, 전통 음식 시식, 조리를 포함한 먹거리 관광, 전통 문화, 농어촌 및 사찰 체험을 통한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임

○ 보건관광은 일상생활권을 떠나 자유의사로 자유재량시간을 활용하는 여가활동인 기존 관광의 정의 중 특히 보건자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참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풍물을 즐기는 관광의 기본정의 중 특화된 영역임

○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산업(2차), 숙박 음식물 서비스(3차)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말함

○ 스포츠관광은 개인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신체적 활동을 하거나 관람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과 관련된 매력물을 좋아하는 레저 중심의 여행을 말함

○ 음식관광은 각 지역의 현지 농수산물 및 특산물 등의 대량화, 규격화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지역의 고유 음식을 쉽게 접하게 함은 물론 음식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관광코스에 연계하는 것을 뜻함

○ 영화관광은 영화·드라마와 관광을 연계시켜 세트장, 촬영지 등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임. 유비쿼터스관광은 미래의 공간에 있어서 관광과 정보기술이 접목되는 것임

III. 의료관광 현황 및 전망

○ 최근 미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나라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적극적이어서 의료관광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통한 국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비용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지역의 관광지에서 활발(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각국의 의료관광 매출액은 2004년 싱가포르는 27만 명을 유치하여 2.9억 달러, 인도는 15만 명 유치, 태국은 2005년 128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330억 바트(약 8.9억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하였음

○ 이러한 의료관광산업은 1999년의 3,900억 달러에서 2019년 6,100억 달러 추산되는 등, 아시아지역의 관광수요 증대와 함께 의료관련 지출액이 급증(Euromonitor International Marketing Forecasts, 2001)하면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최근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의료산업의 경쟁·개방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국제적 이동증가로 인해 의료관광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IV. 의료관광 상품화 사례

1. 국내사례

○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병원인 우리들 병원은 2003년 192명, 2004년 285명, 2005년 411명 외국인환자 유치하였고, 청심병원은 2005년 외국인 환자 1만7797명을 유치함

○ 의료 관광 단지 추진 사례로는 무주 메디컬센터(웰빙센터), 인천 송도 NYP병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휴양형주거단지, 부

산 암센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주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제주 '우리들웰니스리조트', 제주 웰빙테마타운, 제주 한방 관광파크 등으로 현재 계획 중인 단계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해외사례

○ 싱가포르의 경우, 2012년까지 연 100만 명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30억 달러(GDP의 1%) 외화수입, 1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싱가포르 관광청과 경제개발위원회, 무역개발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의료체계와 서비스를 알리는 복합 에이전시인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여 Singapore Tourism Board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태국의 경우, 정부가 외래 관광객의 40%를 의료관광객으로 보고 있으며 관광과 의료서비스 연계하는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육성한 결과,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규모는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5년 외래관광객 1500만명 중 외국인 환자 수는 약 23만 명이고 수입은 48억원으로 2001년 대비 환자수와 수입 면에서 모두 3배 이상 증가하였음. 1998년 협력 기관 간의 회의결과로 의료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기 시작하여 Wellness 패러다임과 관광의 연계 촉진을 통하여 건강 검진(종합 검진과 특별한 검진 패키지, Well-men 검진 패키지, Well-women 검진 패키지, 진단 서비스)과 미용/성형수술로 두 분야로 양분하여 추진 중임

V. 조사 분석

1. 주요 이해관계자별 F·G·I 조사 분석

○ 본 연구 조사는 의료관광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인 연구기관, 언론 및 여행사, 전문병원, 컨설팅업체, 의료지원업체, 일반병원 실무자 중심으로 F.G.I. 및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2.. 업계 의견 조사 분석

○ 의료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언어장벽 타파,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으로 의료관광 비자제도 도입,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상품 지원과 의학전문 통역사 양성, 의료관광 서비스 수준 및 신뢰성 제고 지원방안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의료관광 홍보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3. 한국의 의료관광 잠재력 분석

가.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

○ 국내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1] 결과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 대비 76%, 일본 대비 85%, 유럽의 87% 수준임

○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비보험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분야와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지원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 이윤태(2006). 의료관광 미래 발전 전략

○ 의료기술 수준 조사결과(대한의학회, 2004)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81점 이상이 대부분으로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대등한 기술 및 개발능력을 보유함

○ 의료관광에 적합한 전략진료과목에 대한 설문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실시 결과, 성형외과가 73.5%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성과가 있을 진료과목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일반외과'(19.9%), '한방과'(14.6%), '내과'(14.6%)순으로 나타남. 기타 응답으로는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대체의학'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보였음

○ 의료관광사업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2.8%로 부정적인 견해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의료관광을 위한 특성화된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조사·분석됨. 또한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나.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현황

○ 유명병원에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추세에 있음. 개인병원에는 한류열풍으로 한류스타가 시술한 병원을 중심으로 성형·미용수술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 미용, 성형 분야의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 진료의 비중이 큰 분야가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용·성형분야 평균 의료기술 수준은 90점(미국 100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 기술의 평균인 80점보다 10점 이상 높음

○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6대 암(위.간.폐.대장.유방.자궁)의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로 치료기술 수준이 높음

라. 한국 의료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 현재의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가격 경쟁력은 높음. 의료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대표적인 처치술 및 수술비는 미국 대비 1/10, 일본대비 1/5 수준임

○ 검사료는 미국 대비 1/3 ~ 1/20, 일본 대비 1/2 ~ 1/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VI. 의료관광 복·융합화 촉진 방안

1. 제도적 기반 조성

가. 규제위주 정부 정책 기조 완화 및 합리적 개선

○ 의료관광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협력하여 세계적인 의료관광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산업의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의료관광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복·융합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데 문화관광부가 협력해 나가야 함

○ 획일적인 수가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관광이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함

나. 의료관광 비자(Medical Visa)제도 도입

○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의 경우 치료목적의 입국시에도 비자발급시 초청장에 대한 공증을 요하는 등 까다로운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료관광비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출입국 편의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의료와 관광의 복·융합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 또는 의료부문의 제도적 틀을 넘어서는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두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의료법 및 관광 관련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관광의 복·융합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임

2. 의료관광 수용태세 구축

가. 이원화된 의료관광 상품 전략 추진

○ 미용, 성형, 종합건강검진 등 현재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화상품 선정 지원 및 외과적 수술 및 진단방사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중장기적 육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이원화된 의료관광 상품 전략의 추진이 요구됨

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 의료와 관광부문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를 육성해야 하며, 여행사와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보험회사 등과 합작회사 형태의 전문 에이전시 설립 유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의료관광 컨설팅 업체와 연계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함

x

다. 의료관광 전문통역사 양성

○ 기본적인 통역능력 뿐만 아니라 의학용어 및 질환에 대한 지식, 환자를 대하는 요령, 관광관련 지식을 고루 갖추고 진료와 관련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통역사의 양성이 필요함

라. 국제적 인력교류 지원

○ 선진의료기술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사의 방문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이들 외국인 의사들이 고국에 돌아간 후 이들 의사들의 추천에 의한 외래환자 유치를 촉진하여야 함

마. 의료관광 One-Stop Service Center 운영

○ 의료관광 One-Stop Service Center를 개설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출입국수속지원, 외국인대상 의료관광 전문병원 안내, 통역지원, 상담지원 및 콜센터 운영, 숙박예약, 보험업무 안내 및 처리 지원, 각종 서류 발급 지원(원무 서비스 관련), 관광 상품 안내 및 예약, 귀국 후 치료 지원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의료관광 서비스 수준 및 신뢰성 제고

가. 국제적 인증 추진 및 정부 인증제 도입

○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 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증제인 ISO 및 JCI 인증 획득을 촉진하고, 국내 병원 중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병원을 선별하여 일

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 한해 정부차원에서 지정병원으로 인증하는 국내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함

나. 국가적 차원의 홍보지원

○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의료강국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이와 함께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매뉴얼 발간, 홍보 책자 및 CD 제작·배포,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종합적인 홍보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

다. 의료관광 종사자 서비스 교육 지원

○ 의료관광 지정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상시 친절 교육 실시,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외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의료관광 대상 병원의 서비스 교육 참여 실태와 서비스 성취도 평가를 종합하여 의료관광 지정병원 심사시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등급에 따른 등급별 인증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임

4. 의료관광 추진 체계

○ 관광산업을 매개로 한 산업간 복·융합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를 핵심기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재경부 등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고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의료관광 유치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함

○ 한국관광공사(운영)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을 중심으로 의료관

광 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 Center'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실행조직으로서 관광산업 부문에서 관광여행사, 숙박업체, 전문에이전시, 의료기관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 및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VII. 결론 및 제언

○ 관광객의 인식의 변화와 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더욱 복합화되고 전문화된 관광상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 관광을 매개로한 산업간 복융합화는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관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산업의 신 활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주변 경쟁국가의 의료관광 추진 실태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의료관광의 성장가능성 및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잠재력 분석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관계당국과 업계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행태를 의미하며 21세기 웰빙 및 건강추구형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인식에만 사로잡혀 의료관광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가격과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의료관광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의료관광국으로서 우리의 강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잠

재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미용, 성형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암치료, 외과적 수술 및 진단 방사선과 같이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함

○ 세계적인 의료관광 시장의 잠재력은 무한함. 의료수준이 높은 아시아의 몇 몇 국가들만이 거대한 선진국 의료관광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우리도 빨리 뛰어 들어 그 거대한 블루오션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관광 지도가 다르게 그려지게 될 것임

목 차

서 문

요 약 ····· i

I.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기대 효과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가. 시간적 범위 ····· 4
나. 내용적 범위 ····· 4
다. 연구의 수행방법 ····· 4

II. 이론적 고찰 ····· 5
1.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개념 및 발전 방향 ····· 5
가.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개념 ····· 5
나. 복융합(Convergence)의 배경 및 필요성 ····· 6
다. 복융합(Convergence)화의 이점 ····· 8
라. 복융합(Convergence)의 발전방향 ····· 9
2. 관광산업 복융합화 연관분야 ····· 13
가. 의료관광(Medical Tourism) ····· 13
나. 웰빙(웰니스) 관광(Wellbeing Tourism) ····· 14
다. 헬스투어리즘(Health Tourism) ····· 16
라. 농촌관광 ····· 17
마. 스포츠관광 ····· 19
바. 음식관광(Food Tourism) ····· 21
사. 영화관광 ····· 22
아. 유비쿼터스 관광 ····· 23

3. 관광복융합화 추진모델 및 추진체계 ····· 26
가. 추진모델 ····· 26
나. 조직 ····· 28
다. 주체별 역할 및 기능 ····· 28

III. 의료관광 현황 및 잠재력 분석 ····· 29
1. 의료관광 육성의 필요성 ····· 29
2. 국내 의료관광 현황 ····· 32
가. 의료관광 수요측면 ····· 32
나. 의료관광 상품화 추진 사례 ····· 35
다. 의료 관광 단지 개발 추진 사례 ····· 40
3. 한국의 의료관광 잠재력 분석 ····· 45
가.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 ····· 45
나.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현황 ····· 49
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 49
라. 한국 의료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 50

IV. 의료(보건)관광 상품화사례 ····· 52
1. 해외사례 ····· 52
가. 싱가포르 ····· 52
나. 태국 ····· 56
다. 말레이시아 ····· 60
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성공요인 ····· 63

V. 조사 분석 ····· 65
1. 주요 이해관계자별 F.G.I. 조사 분석 ····· 65
가. 조사 개요 ····· 65
나. 주요 도출결과 및 시사점 ····· 67
2. 업계 의견 조사 분석 ····· 71
가. 의료관광객 유치 ····· 71

나. 제도적 기반 조성 ····· 75
다.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 ····· 77
라. 의료관광 서비스 수준 및 신뢰성 제고 지원 ····· 80
마.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 83
바. 의료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의견 및 정책적 건의사항 ····· 84

VI. 의료관광 복·융합화 촉진 방안 ····· 86
1. 제도적 기반 조성 ····· 86
가. 규제위주 정부 정책 기조 완화 및 합리적 개선 ····· 86
나. 의료관광 비자(Medical Visa)제도 도입 ····· 87
다.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88
2. 의료관광 수용태세 구축 ····· 89
가. 이원화된 의료관광 상품 전략 추진 ····· 89
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 90
다. 의료관광 전문통역사 양성 ····· 90
라. 국제적 인력교류 지원 ····· 91
마. 의료관광 One-Stop Service Center 운영 ····· 91
3. 의료관광 서비스 수준 및 신뢰성 제고 ····· 92
가. 국제적 인증 추진 및 정부 인증제 도입 ····· 92
나. 국가적 차원의 홍보지원 ····· 93
다. 의료관광 종사자 서비스 교육 지원 ····· 94
4. 의료관광 추진 체계 ····· 95

VII. 결론 및 제언 ····· 97

참고문헌 ····· 100

표 목 차

<표 1> 복융합(Convergence)의 정의 ····· 5
<표 2> 혁신방안 ····· 7
<표 3> +0.5차 산업화의 사례 ····· 12
<표 4>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추정 ····· 14
<표 5> 학자간 Health Tourism의 개념 정의 ····· 17
<표 6> 스포츠관광분류와 유형 요약 ····· 20
<표 7> 관광산업 복융합화 추진 모델 ····· 27
<표 8>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 ····· 29
<표 9> 아시아 국가들의 민간부문 의료 서비스 및 용품 지출추이 및 전망 ····· 30
<표 10> 중동지역 병원현황(2004년) ····· 32
<표 11> 연도별 한국방문 목적 ····· 33
<표 12> 의료관광객수 추정 ····· 33
<표 13> 외래 관광객 방한 중 활동(중복응답) ····· 34
<표 14> 무주 메디컬센터 개요 ····· 40
<표 15> 무주 메디컬센터의 세부 도입시설 및 주요활동 ····· 41
<표 16> 송도 NYP 병원 개발 개요 ····· 42
<표 17> 제주 휴양형주거단지 개요 ····· 42
<표 1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요 ····· 43
<표 19> 원주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개요 ····· 43
<표 20> 제주 '우리들웰니스리조트' 개요 ····· 44
<표 21> 웰빙테마타운 개요 ····· 44
<표 22> 한방관광파크 개요 ····· 45
<표 23>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보유 수준 ····· 48
<표 24>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분야 ····· 48
<표 25>주요 병원의 외국인환자* 진료 현황 ····· 49
<표 26> 국내 의료 기술 수준 ····· 50

<표 27> 암환자 5년 생존율(완치율) ····· 50
<표 28> 처치료 및 수술료 가격 비교 ····· 51
<표 29> 검사료 가격비교 ····· 51
<표 30> 싱가포르 민간 종합병원과 국내병원 가격비교(비보험 적용시) 51
<표 31>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수 추이 ····· 52
<표 32>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 52
<표 33> 2개 그룹화 된 싱가포르 공공의료 체계 ····· 53
<표 34> 태국 민간병원의 해외 의료환자 유치 실적(2001～05년) ····· 56
<표 35> 국적별 의료관광객(2004년) ····· 58
<표 36> 태국 보건부의 의료관광 부문 5개년 수입 전망 ····· 59
<표 37> 말레이시아 의료관광객 수입 통계 ····· 61
<표 38> 말레이시아 의료 관광객 국적별 현황 ····· 61
<표 39> 각국의 의료관광 성공요인 ····· 64
<표 40> F.G.I. 조사의 주요 질의 항목 ····· 66
<표 41> F.G.I. 조사대상 ····· 67
<표 42>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 탈피 중요성 ····· 72
<표 43>의료관광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충 중요성 ····· 72
<표 44>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제고 중요성 ····· 73
<표 45> 언어장벽 타파 중요성 ····· 73
<표 46> 국내병원 외국진출지원 중요성 ····· 74
<표 47>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중요성 ····· 74
<표 48> 관광공사를 통한 국제적 홍보 중요성 ····· 75
<표 49> 병원의 관광관련 사업 진출 필요성 ····· 75
<표 50> 의료법 개선 필요성 ····· 76
<표 51> 의료관광 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 ····· 76
<표 52>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 ····· 77
<표 53>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개발 지원 필요성 ····· 77
<표 54> 현재 경쟁력이 있는 특화상품 선정 지원 필요성 ····· 78
<표 55> 의학전문 통역사 양성 필요성 ····· 78
<표 56> 병원 연계 숙박시설 확충 필요성 ····· 79

<표 57> 의료관광 전문 Agency 육성 필요성 ····· 79
<표 58>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필요성 분석 결과 ····· 80
<표 59> 병원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 도입 및 보험개발 필요성 ····· 80
<표 60> 국가적 차원의 의료관광 홍보 지원 필요성 ····· 81
<표 61> 의료관광 지정병원 및 인증제 도입 필요성 ····· 81
<표 62>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육성 및 지원 필요성 ····· 82
<표 63>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필요성 ····· 82
<표 64>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실적 ····· 83
<표 65>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인원 ····· 83
<표 66>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의사 ····· 84

그림목차

[그림 1] 산업의 0.5차 더하기 ····· 6
[그림 2] 복융합(Convergence)의 진화방향 ····· 10
[그림 3] 농업 개념의 변화 ····· 18
[그림 4] 방한목적별 평균 체재기간 ····· 34
[그림 5] 꽃마을경주한방병원 원내-1 ····· 38
[그림 6] 꽃마을경주한방병원 전경-2 ····· 38
[그림 7] 울산 초락당 전경-1 ····· 39
[그림 8] 울산 초락당 전경-2 ····· 39
[그림 9] 무주 메디컬 센터 ····· 41
[그림 10] 무주 메디컬 센터 ····· 41
[그림 11] 의료관광에 가장 성과가 있을 진료과목 ····· 47
[그림 12] 의료관광사업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N = 151, %) ····· 47
[그림 13] 의료관광 추진 조직 체계 ····· 96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관광행태가 다양화해지고 관광욕구가 다변화됨으로써 관광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소규모적이고 소극적, 기호적 성향이 강해지고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관광객의 인식의 변화와 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더욱 복합화 되고 전문화된 관광상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컨버전스, 산업간 융합, 소프트화 진전 등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침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음. 이는 사양산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산업이 고부가화 되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관광을 매개로한 산업간 복융합화는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관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산업의 재도약 및 신활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농촌관광은 농업(1차 산업)에 관광(3차 산업)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있다. 이는 농업개념이 생산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적 영역과는 다른 성격의 (0.5차 더하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의 경우 친환경 오리쌀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의 도입으로 1999년 2,000만원에 불과했던 농가소득이 2003년에는 3,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 4,500명, 2003년 9,5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연간 4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국(상해) 등 주변 경쟁국들의 경우 의

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예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관광청과 경제개발위원회, 무역개발국이 공동으로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였으며 싱가포르 관광청의 경우 'Health Care'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의료시스템과 각 여행사를 연계한 '건강여행 패키지' 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관광서비스(여권수속, 체류기간 연장, 비행기표 예약, 입원수속 및 연계교통, 숙박, 통역서비스, 여행 비자 업무 등)를 강화하고 싱가포르 관광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관광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들은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2012년 외국인 환자 수 백만명, 관련수익 30억, 아시아지역 시장 점유율 3%, 부가가치 26억불, GDP기여도 1.10% 전망).

태국의 경우 푸켓 등 휴양지와 연계하여 2002년에는 33개 태국 민간병원에 총 63만 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2003년에는 97만명을 유치, 264억 바트(약 7,53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의료관광 수입규모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태국정부는 외래관광객의 약 40%를 의료관광객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타이항공 '로얄오키드 홀리데이'와 연계하여 진료와 휴양을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인도의 경우 아유베다·요가 여행 패키지, 중국의 상해 국제 의료특구 SIMZ와 펑린 의료센터 FMC, 말레이시아의 의료와 골프관광 연계하여 페낭지역의 경우 관광객의 20%가 의료관광객인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적 트렌드인 '산업간 복융합'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광의 영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관광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의 영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 난치성 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부문의 국제화 등으로 인해 건강이란 주제가 21세기의 화두가 되면서, 건강을 위주로 한 관광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관광수요 증대와 함께 의료관련 지출액이 급증(2019년 6,100억 달러 추산, Euromonitor International Marketing Forecasts 2001)하면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의료산업 유입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분야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국내 수요도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 각국이 전략적으로 복융합화의 대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의료분야의 복융합화의 촉진을 통해 관광산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간 복·융합화' 현상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촉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기존산업과 관광산업 간 복융합화의 효율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수립을 의료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함

2. 연구의 기대 효과

○ 초기 단계에 있는 1,2,3차 산업과 관광산업간 복융합화의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의 영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결합을 통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증가하는 의료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시장을 창출함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시간적 범위

○ 연구기준 연도 : 2005년
○ 연구목표 연도 : 2006 ~ 2010년 (5년간)

나. 내용적 범위

○ 관광산업 복융합화의 개념 및 동향 분석
○ 관광산업 복융합화의 유형 및 연관 분야 검토
○ 국내·외 사례 분석
○ 의료관광 현황 및 전망
○ 의료관광 상품화 사례 분석
○ 의료관광 복·융합화 촉진 방안

다. 연구의 수행방법

○ 복융합화 관련 산업 이론 및 관련 개념 고찰
○ 전문가 간담회 및 연구 협의회 개최
○ F.G.I.를 통한 심층분석(의료분야를 중심으로)
○ 해외 사례 조사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의료관광 추진 동향 및 관련 정책 분석
○ 조사 분석
- 의료분야의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F.G.I 조사 분석
- 의료관광분야의 복융합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행업계 의견조사(설문조사) 분석

Ⅱ. 이론적 고찰

1.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개념 및 발전 방향

가.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개념

일반적으로 복융합(Convergence)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체나 어떤 현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융합화는 단순히 다른 기술이나 제품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이나 제품을 융합하여 기존 제품들의 산술합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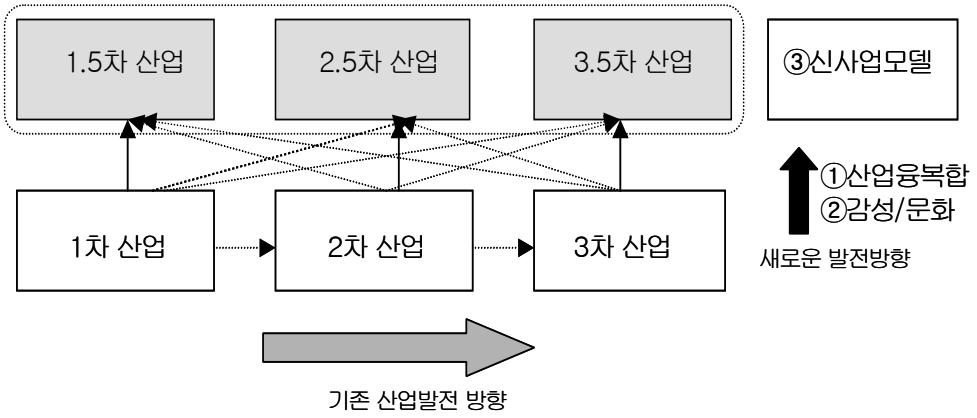
<표 1> 복융합(Convergence)의 정의

-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체나 어떤 현상이 함께 어울러 지는 것을 말함(왓이즈닷컴)
- 기기나 산업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요소가 합종연횡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말함(진대제, 2005)
-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사물이나 기술들이 합쳐지는 것을 말함. 통신기술과 스캔 기술 그리고 프린팅 기술이 합쳐진 팩스 혁명이 그 예임(웹오페디아닷컴)

이러한 복융합화라는 용어는 17세기에 수학, 생물학 등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 MIT에서 컴퓨터, 프린팅, 방송이 결합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장 빠른 혁신과 성장은 3영역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된다고 주장하면서 복융합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복융합의 사업적 의미는 유사기능을 활용해 타 분야를 추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업종의 진출, 수직적/수평적 사업결합 등을 포함하고,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복융합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러한 복융합은 마이크로/매크로, 산업내/산업간, 융합형/추가형 복융합 등으로 구분된다.

'0.5차 더하기(+0.5차)'는 기존 산업 간의 복융합이나 감성·문화·속도 등과 같은 소프트 요소의 결합, 신사업모델 창조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고도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간 복융합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잠재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감성·문화 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고정화(Lock-in)하는 것, 신사업모델은 획기적인 사업모델과 사업개념을 창조하여 추격자를 따돌리고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산업의 0.5차 더하기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4), 국내산업의 재도약 방안 「0.5차 더하기」

나. 복융합(Convergence)의 배경 및 필요성

전자산업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복융합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복융합(Convergence)은 IT의 새로운 물결로 카메라 폰, MP3 폰 등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결합된 형태의 복융합형 제품 및 이동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융합한 DMB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복융합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카메라 폰, MP3 폰 등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결합된 형태의 복융합형 제품 및 이동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융합한 DMB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복융합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복융합화 현상은 비단 IT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의 복융합과 같은 IT 분야와 비IT분야의 복융합도 있고, 유통서비스와 금융서비스간의 복융합화(편의점에서 공과금 수납 등)도 복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IT로부터 시작된 복융합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convergence 시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융합화의 확산은 기업혁신의 툴로서 활용되면서 각 산업에서 점차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컨버전스에 따른 미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과제, 2006).

수많은 산업, 사업, 제품의 창조, 쇠퇴, 소멸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존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일은 곤란하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재조합적 혁신이 복융합이라는 형태로 등장하였다. 재조합적 혁신-복융합(Convergence)-은 다양한 산업 및 사업에서 검증된 기술, 아이디어 등을 창조적으로 재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다양화, 고도화 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말한다.

<표 2> 혁신방안

• 창안적 혁신 -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Think outside of the Box) - 기술 성숙, 경쟁 심화 등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은 곤란-추진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성공확률은 낮음 • 재조합적 혁신 - 이미 존재하던 것들의 새로운 조합(Think in Different Boxes) - 다양한 산업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 아이디어 등을 창조적으로 재조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혁신 방안 - 이미 이용 가능한 것들을 토대로 해 더 적은 노력으로 미래를 구축

자료:한국전산원(2006). 컨버전스에 따른 미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과제

다양화, 고도화 되는 고객 니즈와 더불어 복융합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융합화가 등장하게 되었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반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내 및 산업간 정보화와 지능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화 및 통합도 가능해졌다.

관광산업 역시 동종 산업군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복융합과정을 통해 다양화되는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변모하고 있다. 신라호텔의 경

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내걸고, 식사와 숙박뿐만 아니라 쇼핑, 건강, 휴식, 이벤트, 뷰티, 웨딩, 콘퍼런스, 재무상담까지 모두 호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텔 일부 층에 한방병원과 자산관리를 해 줄 PB 센터(삼성증권), 수면클리닉, 노화예방클리닉, 치과, 피부과, 포토 스튜디오, 여행사, 컨퍼런스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다. 복융합(Convergence)화의 이점

첫째, 복융합화를 통해 기존 산업 또는 사업 내 제품/서비스로는 창출하기 힘든 고객 효용 창출이 가능하다. 편의성 제고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진화하는 가운데 산업 혁신을 통한 효용증대는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산업 복융합 영역에서 다양한 혁신의 생성과 획기적인 효용증대가 가능하게 되었다(한국전산원, 2006). 자동차 산업의 경우 IT산업과의 복융합 과정을 통해 타이어 결함 자동감지 및 졸음운전 경고 등 안전성 제고,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편의성 제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증대로 경제성 향상 등 기계식 자동차로는 힘든 고객효용을 창출하고 있다. 의료관광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의료관광사업은 관광산업 부문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신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증대, 장기체제를 위한 휴양시설 개발, 관광서비스 허브상품의 동반성장 등의 효용을 창출해 내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기존 산업이나 사업이 레드오션으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복융합화는 경쟁에서 자유로운 블루오션 생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의 창출이 가능하다. 복융합 영역의 경우 기존 기술만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경쟁자가 소수이므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이 가능하다. 토요타가 개발, 출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솔린 엔진+ 전기모터) 프리우스는 현재 2만달러 수준으로 동급 소형 자동차보다 5천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

관광산업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 관광산업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엮어줄 매개체와의 복융합을 통해 역내 관광산업의 총체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관광안내 네비게이션과 "아이러브 제주"를 통해 제주도내 모든 관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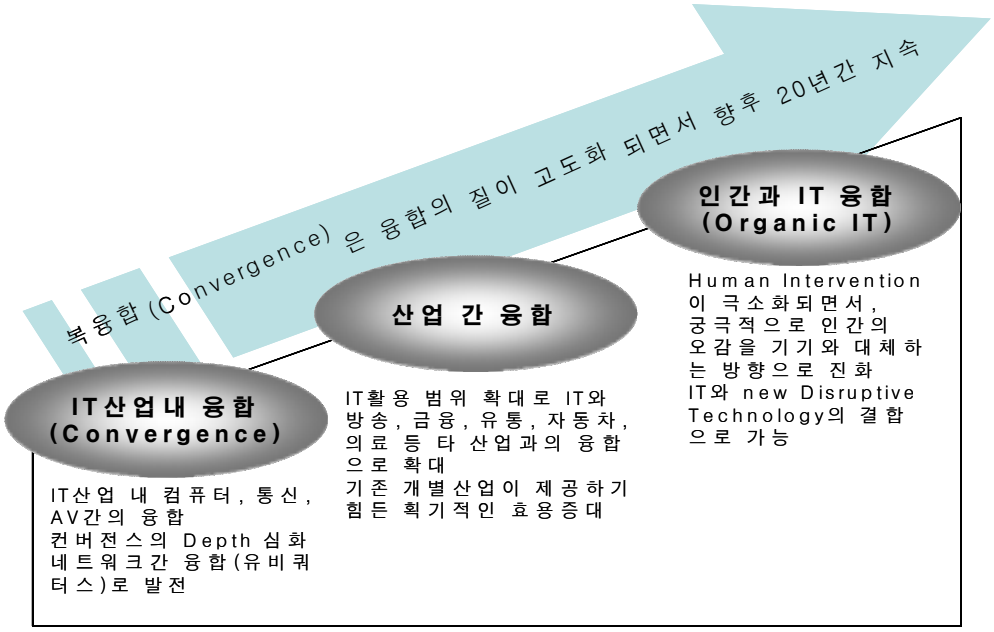
및 자원을 소개하고 연결시키고 있다. 아이러브제주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여행 검색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지도 및 쿠폰북이 포함된 제주여행안내가이드 북을 매달 발행하고 있다.

셋째, 복융합 영역의 경우 게임 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자동화 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엔진기술, 글로벌 생산체제 등이 핵심 성공요인인 반면 IT와의 복융합을 통해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핵심 성공요인이 모터·전자 제어 기술, 반도체 기술 등으로 변모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산업 외부에 있었던 기업들이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여행검색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관광산업이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Expedia.com'이나 'Travelocity.com' 등은 2004년 한 해 매출 54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주피터 리서치는 2009년에 매출이 9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매일경제, 2006-6-13). 여행검색 포털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서는 대형화, 전문화의 정도가 약한 실정이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기존 포털 사이트들에게 좋은 틈새시장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의 복융합화는 획기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블루오션의 창출이 가능하고 또한 게임 룰의 변화 등 소비자와 기업에게 긍정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미래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 복융합(Convergence)의 발전방향

융합화, 복합화, 복융합화 또는 컨버전스(Convergence)는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IT 분야에서의 복융합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송병락, 2005). 또한 BT(생명공학 기술), NT(나노 기술) 등 기술의 복융합화, 제조업과 금융 산업의 복융합화 등 산업 간에도 많은 복융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복융합 과정은 향후 20년간 지속될 전망이며, IT산업내 복융합화 단계에서 산업 간 복융합화 단계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그림 2] 복융합(Convergence)의 진화방향

자료: 한국전산원(2006). 컨버전스에 따른 미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과제

관광산업에서 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네비게이션(Navigation), 인터넷 등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의 접목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또한 연관관계가 없어보였던 3차산업간의 복융합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의 복융합화는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가장 발전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상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교육과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스포츠산업과 관광사업의 복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역시 E-마케팅과 E-커머스의 영향으로 점차 IT산업과 복융합화 되는 추세이다. 관광산업에 있어 ICT의 발전으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관광과 IT산업의 복융합(Convergence)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며 새로운 마케팅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ayport & Jaworski, 2001). 여행관련 포털사이트, 웹기반 호텔예약시스템, 항공권-렌탈 연계 예약시스템 등 관광객이 직접 관광상품을 선택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웹기반이 갖추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개별관광객(FIT) 및 특정목적관광객(SIT)의 증가

에 따라 웹기반의 관광정보제공 및 예약, 수배 시스템은 그 수요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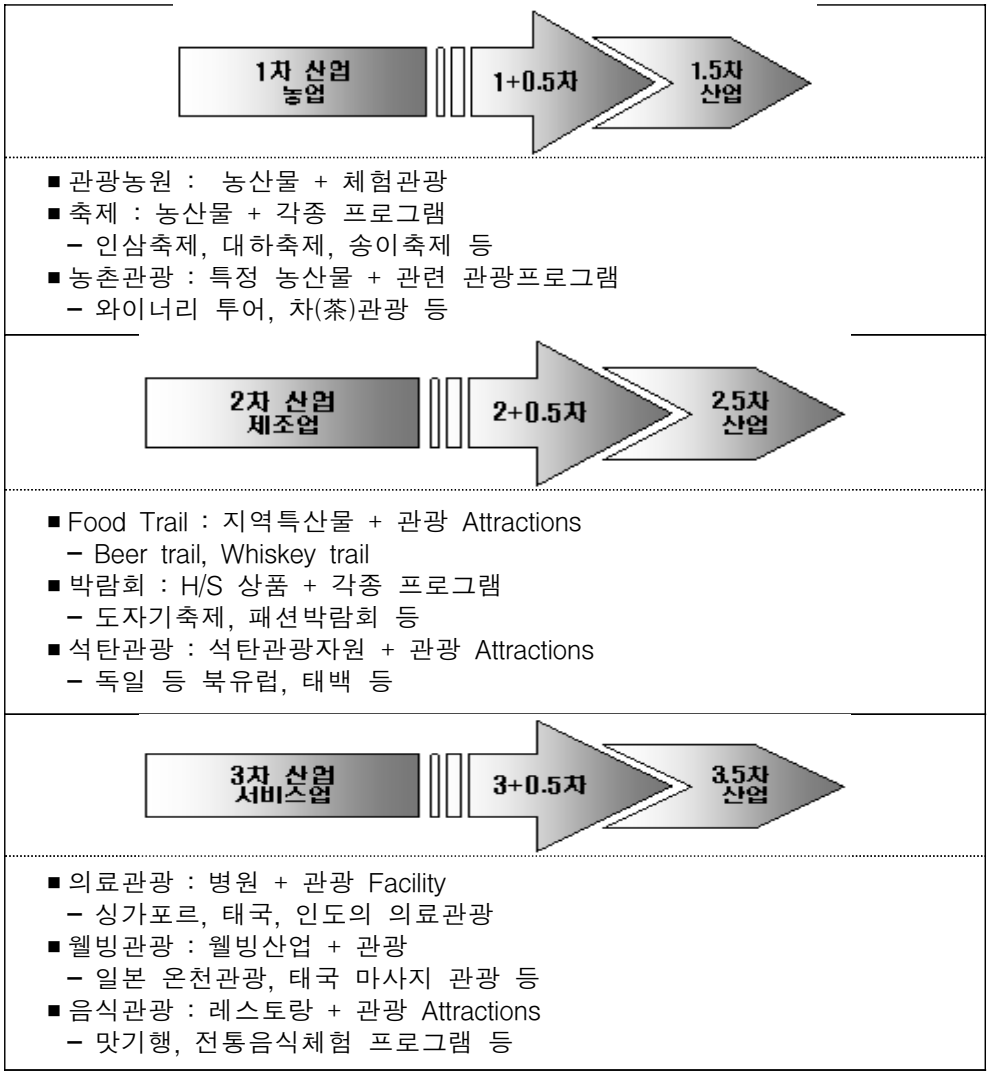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인프라로서 네트워크 복융합, 디바이스 복융합, 서비스 복융합 인프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웹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복융합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다양한 단말기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글루(GLUE)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김은주, 2006). 능동적인 관광활동을 지향하는 seif-organizer형 관광객 수요의 정확한 파악 미흡, 관광자원관리의 효율성 부재, 개별화 되어 있는 관광시스템의 네트워크 미비 등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유비쿼터스적 관광산업이 고려되어야 한다(이영주, 2004). 산업의 소프트화・서비스화가 가속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무형자산의 부가가치 기여도 증대로 산업의 +0.5차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 간 경계가 와해되면서 전체산업은 산업간 또는 비즈니스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네트워크형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 향후 네트워크형 산업구조에서는 기존 독립된 개별 산업은 새로운 영역에 흡수되거나 잔존형태로 남으면서 점차 영역이 축소될 것이다(한국전산원, 2006).

관광산업에서의 복융합화 현상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경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융합화의 확산은 전통적인 산업 분류를 넘어 +0.5차의 복합 산업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관광산업의 +0.5차 산업화는 산업 각종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농촌관광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마을에서의 숙박 및 식음료 제공을 통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활동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체험관광프로그램 및 마을 내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와이너리 투어(Winery Tour) 역시 포도농장의 +0.5차 산업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역 특산물 축제의 경우 지역의 유명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매개체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박람회 역시 지역의 연관 산업 및 우수 상품의 발굴 및 상품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의 경우 3차 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이 결합된 예로 산업 내 제품・서비스 간의 경쟁이 아닌 산업을 초월한 비

즈니스 모델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복융합화가 심화된 예로 산업 내 기존 가치사슬이 해체되어 통합과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 간 연계를 포괄하는 새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가치원천이 H/W중심에서 컨텐츠·솔루션/ 서비스 등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김재윤, 2005).

<표 3> +0.5차 산업화의 사례



자료: 연구자 작성

2. 관광산업 복융합화 연관분야

가. 의료관광(Medical Tourism)

1) 개념 및 중요성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를 말한다.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세계 많은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식품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주로 비용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국가들(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의료허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특히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이 되는 '의료관광'에 대규모 예산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며, 특히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간단한 수술 등으로 찾는 환자의 경우 관광을 연계하여 머물기 때문에 체류비용이 높아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한 Site Seeing에 그치던 과거의 관광행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보람 있고, 심신을 풍요롭게 하며, 모험성을 내포하고, 학습적 경험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의 확대로 볼 때, 의료관광은 체험관광 중 특이체험으로써 거주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방문지역에서만의 특이한 문화체험으로써, 미래관광을 실현하고 주도하는 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의료관광 육성 정책

싱가포르는 2004년 27만 명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2.9억 달러 수익 창출하였다. 싱가포르 관광청의 경우 '건강관리(Health Care)'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하고, 싱가포르의 의료시스템과 각 여행사를 연계한 '건강여행 패키지'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2012년까지 연 100만 명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30억 달러(GDP의 1%) 외화수입, 1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추정

(단위: 천명, 백만달러, %)

년도	외국인 환자	수 입	GDP 기여도
2000	147	430	0.25
2007	500	1,500	0.65
2012	1,000	3,000	1.1

자료: 싱가포르 관광청 내부자료

태국 정부는 외래 관광객의 40%를 의료관광객으로 보고 있으며 관광과 의료서비스 연계하는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육성하여 해외환자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해 왔다. 태국 병원들은 푸켓 등 휴양지와 연계하여 2002년에는 33개 태국 민간병원에 총 63만 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2003년에는 97만 여명을 유치, 264억 바트(약 7,53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004년에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110만 명을 유치하였고, 평균 27% 가량 성장하여 2005년에는 128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330억 바트(약 8,9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나. 웰빙(웰니스) 관광(Wellbeing Tourism)

1) 웰니스 관광의 개념 및 중요성

웰니스(Wellness)란, 신체적인 건강에 국한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의 건강으로서 웰니스의 3요소인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합하여 추구해 나가는 것(WHO 규정)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61년 미국에서 출간된 던(Duun)박사의 저서 "High Level Wellness"에서 사용

된 개념으로써 건강(Health)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높은 수준의 건강을 획득하여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생활 활동의 종합을 의미한다. 건강관리(웰니스)란 개개인이 최적의 건강(Optimal well being)을 향하여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양식을 변화하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혹은 최적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돕는 새로운 개념이다. 웰빙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하여 향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양, 의료, 미용 등 건강 증진 관광, 자연 휴양 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관광, 전통 음식 시식, 조리를 포함한 먹거리 관광, 전통 문화, 농어촌 및 사찰 체험을 통한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 웰니스 관광 육성 정책

독일의 모든 경제분야가 정체 또는 침체 상태에 있는 반면, 웰니스호텔은 급성장하는 붐을 일으키고 건강관리(웰니스) 휴가는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로 이 사업에 참여한 호텔수가 2002년도에 939개소에서 2003년도에는 1106개소로 18% 증가하였다. 웰니스 호텔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호텔을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여서 RELAX Guide 2004를 출간 하였다. RELAX Guide 2004는 크리스챤 베르너가 매년 유럽과 아시아의 1900여개의 유명호텔들을 평가해온 결과 안내책자로 출간한 것으로 휴가를 네가지(건강관리, 요양, 건강호텔, 미용원) 유형으로 구분한다. 호텔의 Quality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백합 수 1개에서 4개로 호텔의 등급을 표시한다.

휴가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Wellness)는 "의사없이" 일반적으로 다소 차분한 느낌을 주는 환경을 보증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긴장이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Kur)은 3주간 체재하고 전문적인 진단 및 의사가 이끄는 치료과정이다. 건강호텔(Gesundheitshotel)은 의학적 진찰에서부터 체질개선을 위한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후유증 치료 등을 포함 하는 것을 말한다. 미용원(Beauty Farm)은 일종의 병원이며, 요양소이다. 일반적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입지하는 주로 여성들이 얼마간 머물면서 치

료에 의해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회복하는 곳을 말한다.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Naur & Lace(자연과 위치): 조용한 위치에서 조망이 아름다운 곳에 입지해 있는가에 대한 자연환경의 심미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Headgear & Softener: 하드웨어는 우선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가 시각적 자극을 줄인 환경에 높은 점수를 준다. 자극에 짓눌려 휴식을 취하고 싶은 고객들이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인테리어 분위기를 headgear로 평가한다. Softener는 headgear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종업원들의 분위기에서 친절과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지님으로서 손님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호텔업에서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Locker & Easy: relax-uraeus(긴장완화 휴가), 세미나여행, 행사관광, 버스관광을 배제한 것이다. 아침식사를 목욕가운을 입은 채 편안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건강관리 휴가자만이 묵을 수 있는 호텔에 점수를 많이 가산하고 있다. 즉 점심은 16:00까지 가능하고 실내수영장은 24시간 운영된다. Berating & Verreau(자문과 판매) : 건강호텔과 미용원의 고객들은 마사지 또는 미용코스를 강요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며, 특히 미용분야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든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계획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과 치료계획이 없는 곳은 점수를 못 받게 된다.

다. 헬스투어리즘(Health Tourism)

'Health Tourism'은 '보건관광', '보양관광' 등으로 표현된다. '보건(Health)'은 일반적으로 건강증진(보건의 습관, 영양, 운동, 휴양 등), 질병의 발견과 치료(건강진단, 치료, 간호 등), 질병의 예방(전염병 예방, 환경위생관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1990년대에 들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Health Touris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과 아울러 학문적인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보건관광'은 일상생활권을 떠나 자유의사로 자유재량시간을 활용하는 여가활동인 기존 관광의 정의 중 특히 보건자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참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풍물을 즐기는 관광의 기본정의 중 특화된 영역[2]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보건관광사업을 뉴밀레니엄 사

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15개 사업체를 지정하였다. 학자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학자간 Health Tourism의 개념 정의

학자명	내 용
Goodrich(1987)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나 시설을 의도적으로 촉진(홍보)함으로써 관광자를 끌어들이는 관광시설이나 목적지
Hall(1992)	특별한 흥미가 있는 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중 하나로서 주요 동기가 건강과 관련 있는 관광
Eric(1996)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집을 떠나 행하는 레저 형태

보건산업과 관광산업은 모두 21세기 국가의 전략산업 군으로서, 보건산업과 관광산업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그 산물로 보건관광산업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라. 농촌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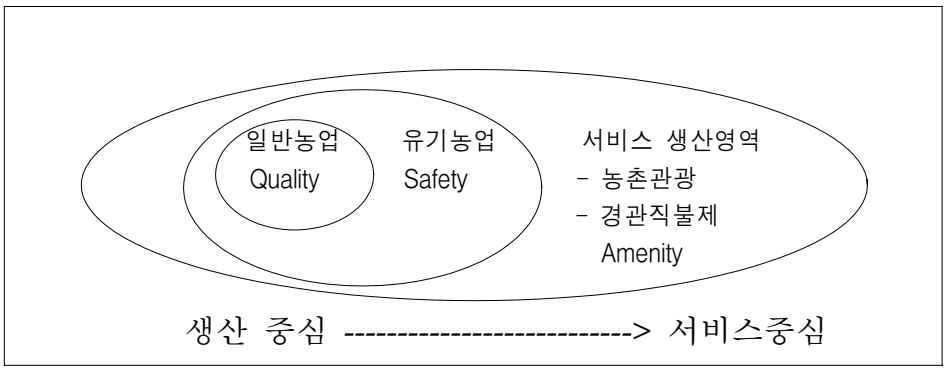
1) 개념 및 중요성

농촌관광이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산업(2차), 숙박 음식물 서비스(3차)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활성화 운동을 말한다. 농업(1차 산업)과 관광(3차 산업)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0.5차 더하기」실현하고 있다. 농촌에 남아있는 소박한 인정, 전통문화, 자연경관 등이 도시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농촌의 성격이 농업생산 공간에서 생산·정주·휴양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2). 보건관광자원 조사 및 상품화방안 연구.

[그림 3] 농업 개념의 변화



자료 :임영모(2004), 국내산업의 재도약 방안『0.5차 더하기』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시장개장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농업과 관광을 결합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업이 생산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농촌사회는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인식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농림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농촌관광 지원시책을 펴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400개의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서로 결합한 복합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은 도시민들에게는 탈산업사회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농외소득을 농민에게 안겨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3]하고 있다.

2) 일본 농촌관광 육성 사례

일본에서의 농촌관광은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유인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며 정부는 농촌지역 활성화, 도시와 농촌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농촌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농촌관광이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것은 1995년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촉진법'을 통해서이다. 1992년 6월에 공표된 정책에서 지역 전체의 소득 유지 및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

3) 이상배, 1989:92~93

점에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아름다운 농촌 공간 형성에 기여하는 농촌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1995년 4월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농업체험, 민박 등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실시,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8년 12월 농정개혁대강에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가 국민적 운동으로서 정착하도록 소프트, 하드 양면에서 조건을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 7월 12일 성립한 '식료,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도농교류로서 1개조가 규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에현 아야마 마을 뭉게뭉게 농장"[4]을 들 수 있다. 자연・농업・수작업을 테마로 농업생산 + 판매 + 가공 + 체험 + 관광을 연계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쌀・채소, 햄・소시지・맥주 등의 판매 및 학습목장, 승마 등의 체험관광을 통해 연 매출 25억엔(250억원)을 달성하고 농장브랜드 확립에 성공하고, 양돈가 및 농협출신인 17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200명이 넘는 사원을 보유한 농업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마. 스포츠관광

1) 개념 및 중요성

스포츠 관광이란 개인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신체적 활동을 하거나 관람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과 관련된 매력물을 좋아하는 레저 중심의 여행(Gibson, 1999)을 의미한다.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최초의 저서는 1887년 Victor Black의 "관광과 스포츠"이다.

스포츠관광은 관람형(spectating)과 참가형(pariticipating)으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전문적으로 관전스포츠만 즐기는 관광객으로써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에서 자국 선수의 경기를 따라다니며 응원하는 이들로 관중 혹은 관계인이고, 후자는 관광의 목적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을 통한 관광, 우연한 형태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4) 本下辛(2005). "이제는 농업경영자의 시대", 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표 6> 스포츠관광분류와 유형 요약

연구자	연도	분류	비고
Gibson	1999	활동형 스포츠관광, 이벤트형 스포츠관광, 노스텔지아형 스포츠 관광	행동을 중심으로
Redmond	1999	리조트(resort & vacations), 스포츠	국립공원에서의 스포츠 매력물
STIC (Sport Tourism International Council)	1995	박물관, 스포츠축제와 스포츠시설 역사적 스포츠시설 같은 매력물, 스포츠 중심의 리조트, 스포츠 주제중심의 크루즈, 특정 관광지의 다양한 골프경기 등 스포츠 투어, 주요 스포츠 이벤트	
Standeven & DeKnop	1999	휴일 대 비휴일, 수동적관람자 대 활동적(운동참가자), 조직된 스포츠경기 대 독립된 스포츠경기, 높은 동기 대 낮은 동기, 단일 스포츠 휴일 대 복합스포츠 휴일	
Nogawa, Yamaguchi & Hagi, 1996)	1996	이벤트 참가자, 이벤트 관람자, 스포츠러버	스포츠관광자에 대한 유형

자료: Hinch & Higham, 이훈(2002) 재인용

최근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각종 대회 등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스포츠와 관광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체험관광의 형태로서 스포츠관광은 중요한 관광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메가 이벤트로서 스포츠 행사는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전반에 걸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부산시는 스포츠관광 육성 사례를 통해 스포츠 관광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축구 선진도시 부산”을 위한 “부산 그라운텔”조성하는데 “그라운텔(grountel)"이란 Ground + Hotel의 합성어로 숙박시설을 겸한 축구장으로서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2002 아시안게임 관련 체육시설을 활용, 운동장과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골고루 갖춘 “부산 그라운텔”을 조성하여 스포츠 마케팅과 체험관광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07년 완공을 목표로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장 부지에 천연잔디구장 7면, 인조잔디구장 2면, 미니구장 2면 등 11면의 축구장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숙소 100실, 시민들의 오락 활동과 스포츠관광을 위한 유희시설

(어린이 및 가족용 각종 놀이기구), 휴양시설(숙박시설, 놀이동산, 수련시설 등)등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외 각종 축구대회 및 프로축구팀의 전지훈련 유치, 유소년 축구교육, 축구협회 및 초·중·고·대학팀의 대규모 연습지원, 가족단위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바. 음식관광(Food Tourism)

1) 개념 및 중요성

각 지역의 현지 농수산물 및 특산물 등의 대량화, 규격화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지역의 고유 음식을 쉽게 접하게 함은 물론 음식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관광코스에 연계하는 것을 뜻한다. 거시적으로는 음식이 관광동기 요인이 되어 방문객이 관광지를 찾도록 연계하여 산업 메커니즘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미시적으로는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전통음식, 토속음식 등의 공급, 유통 및 소비의 통로로 관광활동을 유발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

외래관광객 여론조사 결과 방한외래객의 쇼핑품목 중 식품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993). 또한 음식관련 소비는 숙박 및 쇼핑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쉽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다. 음식은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음식물 생산이 지역경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관광목적지의 매력물을 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시킨다(Hall & Sharple, 2003).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오늘날 전통음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의 각광을 받는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급자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면 이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성이 큰 효과적인 지역발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93; 정희선 2000). 또한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은 현대사회에 있어 주로 고유한 전통문화자원, 본고장 산물의 소비 촉진, 미식의 즐거움 제공, 우수한 관광선물용품과 같은 관광적 가치를 가진다(김복일 외 1998).

2) 음식관광 육성사례 : 보성 차밭 관광프로그램

보성녹차의 경우 한해 녹차 수입만 2264억원, 2004년에 보성을 다녀간 관광객이 600만 명에 이르는 등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보성에 기업적인 다원(茶園)을 조성하였으며, 차밭 주변에 삼나무를 심어 일본식 다원을 조성했다. 그 뒤 1957년 대한다업(주)에서 인수 뒤 차밭을 추가로 조성하고 1973년 일본에서 전자동 녹차 생산시설을 들여와 수공업 형태에서 벗어난 차 산업을 시작했다. 2003년 보성지역 차 재배면적은 551.3ha로 전국 최대의 차 생산지이며 삼나무로 가꿔진 대한다원의 경관은 또 하나의 관광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성녹차를 이용한 관광산업은 광고 촬영지로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99년까지 연간 100만 명 수준의 관광객 수가 2004년에는 6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2003년 559만 3000여명의 관광객 가운데 52%인 292만 명이 차밭에서 추억을 만들었으며, 20%에 해당하는 108만 명도 차밭 인근 회천면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나 차와 관련된 관광객 숫자는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조한 사례인 차밭 인근 회천면 율포 해수욕장에서 시작된 해수·녹차탕은 개장 2년 만에 40만 명이 이용해서 직접 경영수익 22억원, 고용효과와 주민 간접소득까지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 영화관광

1) 개념 및 중요성

영화·드라마와 관광을 연계시켜 세트장, 촬영지 등을 관광상품화 하는 영화관광(Film induced Tourism)이 급부상 하고 있다. 영화관광은 세트장 및 로케이션 장소가 관광명소가 되거나, 영화제 개최, 연관업체 입지 등으로 지역 전체가 영상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고정민, 2004)한다. 영화장면 체험코스 개발, 영화·드라마와 관련된 문화상품개발·판매하여 촬영지를 단순히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닌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관광은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관광산업과 융합되어 스토리를 덧붙이고 패키지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영화 관광 육성사례

1996년 이후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성공리에 개최되면서 부산을 영화도시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8대 영화제,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성장함으로써, 관련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부산프로모션플랜(Pusan Promotion Plan)을 아시아 필름 마켓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화촬영지, 스튜디오와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묶어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기간을 고정시키고, 영화제를 위한 공간을 별도 마련하고 '친구의 거리'와 같은 촬영지들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정민, 2004).

부산에서 제작되어 2001년 8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친구'는 영화 상영 이후 남포동 일대,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등 촬영지들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2001년 5월 4천 만원을 투자하여 기념현판 및 사진촬영장소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부산시는 영상과 관광이 복합된 클러스터를 지향하여 영상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부산에서 로케이션과 스튜디오 촬영, 후반작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One-Stop Production 기지 구축하였다.

아. 유비쿼터스 관광

1) 유비쿼터스[5]의 개념 및 중요성

유비쿼터스란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며, 즉 물이나 공기처럼 도처에 편재한 자연 상태를 의미한다. 이 용어가 정보사회의 차세대 키워드가 되면서 현재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란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주변 환경에 내재돼 모든 사물 및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새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

5) 이영주(2004).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관광에의 적용. 강원개발연구원

'유비쿼터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지칭한다(아라카와 히로키・히다카 쇼지, 2003).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개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미국 제록스사의 팰로알트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이다. 마크 와이저는 1993년에 쓴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어디에서든지 컴퓨터에 액세스가 가능한 세계(computing access will be everywhere)"라고 정의를 내렸다. 와이저가 처음 개념을 소개한 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단어는 여기저기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휴대전화의 폭발적인 보급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의미를 크게 확장시켜 놓았다. 즉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단말기에 컴퓨터 침을 집어넣어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것도 '유비쿼터스'영역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한발 더 나아가 모바일 단말기야말로 '유비쿼터스'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즉 "어디에서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의가 "어디든지 (소형)컴퓨터를 휴대해 다니며 사용한다."는 식으로 정의가 확장된 셈이다(아라카와 히로키・히다카 쇼지, 2003).

이런 제도나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원하는 관광지에 찾아갈 때 GPS와 네비게이터를 이용해서 도로사정과 원하는 곳까지의 최단거리를 알 수 있고, 현지의 날씨 상황도 알 수 있게 되며 관광지에 도착해서 지도를 보면서 방황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관광지에서 어디를 다니더라도 휴대폰으로 지역에 관한 실시간 동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PDA나 소형 컴퓨터로 보다 많은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있다. 즉, 유비쿼터스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종이지도나 정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고 보다 동적이고 고급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계획하는 여행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세울 수 있다. 삶의 공간 안에 다양한 정보기술이 실험 및 구현되고 있으며, 향후 관광과 정보기술의 접목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유비쿼터스 관광 육성정책 호텔관광산업

관광객이 호텔서비스를 직접 컨트롤 한다. 다른 관광서비스와 호텔서비스 일체를 수요자가 컨트롤하는 FIT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의 관리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호텔서비스 종사자의 개별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호텔 종사자의 서비스 업무 지위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광관련 정보들을 고객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알고 싶게 만드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단의 습득은 업무를 위한 최우선의 요건이 될 것이다. 고유의 서비스 업무에 정보와 마케팅을 결합한 멀티 플레이어형의 종사자가 바람직해질 것이다.

3. 관광복융합화 추진모델 및 추진체계

가. 추진모델

○ 관광산업과 복융합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의료, 교육, 영상, 정보통신, 음식, 스포츠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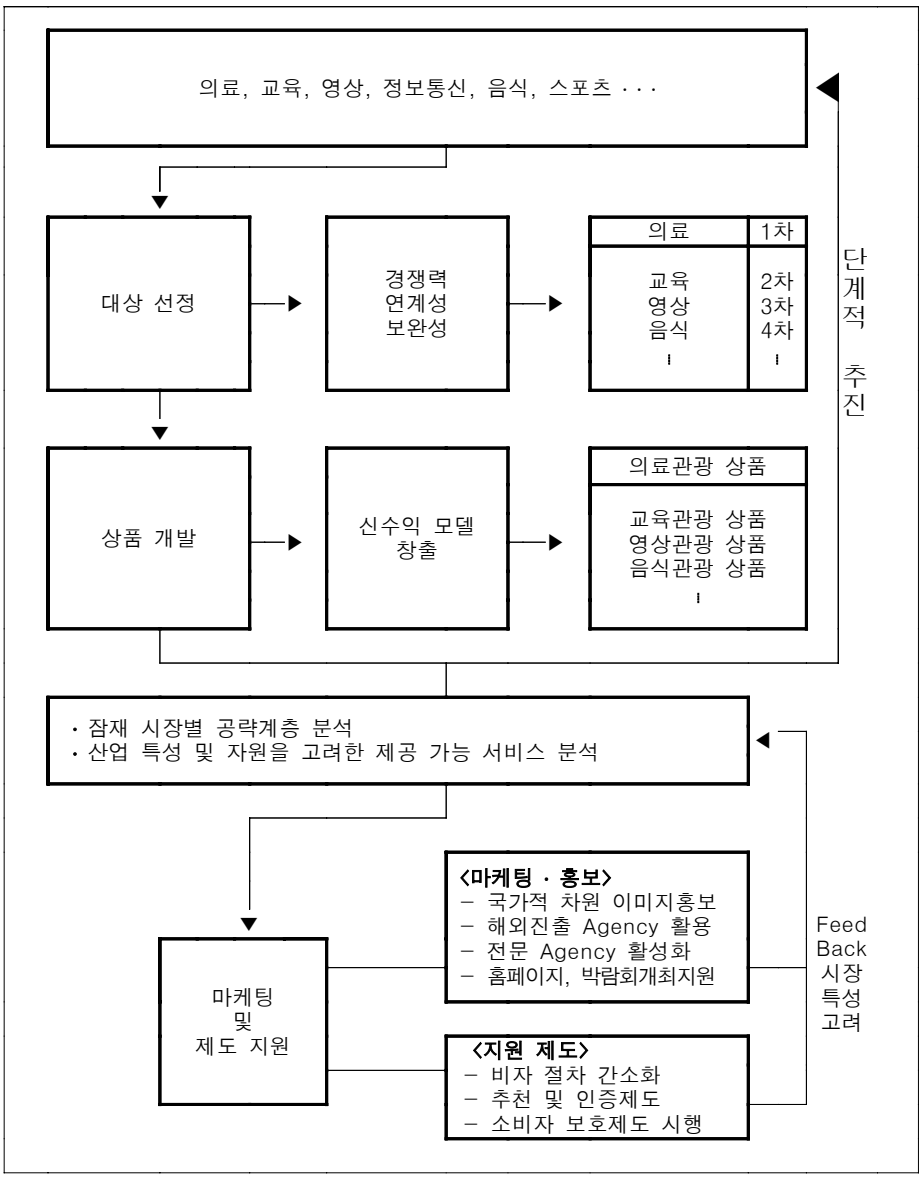
○ 관광산업 복·융합화 추진을 위해서는 1단계로 각 분야의 경쟁력, 연계성, 보완성을 기초로 한 복융합 대상 선정이 필요함

○ 복·융합의 전략대상 선정이 완료되면 이와 관련된 잠재시장의 파악과 타겟의 선정이 필요함. 이는 기존 산업 및 관광산업의 특성 및 지원을 고려한 제공 가능 서비스의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함

○ 다음으로 신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복융합 분야의 상품개발임

○ 다음은 마케팅 및 지원 단계임. 정부 및 관련 업계, 관련 전문기관 등이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의 이미지 홍보, 전문 Agency의 설립 및 육성, 홈페이지 개설 및 관련 행사개최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함. 특히 정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해외 소비자를 위한 비자절차 간소화 등 입국서비스 개선, 추천 및 인증 제도를 통한 신뢰성 제고, 소비자 보호제도의 시행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표 7> 관광산업 복융합화 추진 모델



나. 조직

○ 관광산업을 매개로 한 산업간 복융합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를 핵심기관으로 하여 관련 정부부처, 관련협회 및 연구소,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련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치협의회의 구성이 요구됨

○ 실행조직으로는 관광산업 부문에서 관광여행사, 숙박업체, 전문에이전시를 중심으로 연계산업분야의 관련기관이 연합하여 추진토록 함

○ 특히 복융합의 전략을 통해 새롭게 구현되는 신시장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관련기업, 개인)를 위한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One-Stop Service Center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다. 주체별 역할 및 기능

○ 문화관광부

- 복·융합 전략 분야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복·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제도 개선 등 사업기반 조성
- 관련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체제 마련

○ 한국관광공사

- 복·융합 분야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잠재시장 발굴
-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 추진
- 복·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국내외 기업 및 개인)들의 편의서비스 제고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One-Stop Service의 설치 및 운영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관광산업을 매개로한 복·융합화 전략 방향 설정
- 세계적인 트랜드 분석 및 해외 정보 수집
- 관광산업 복·융합화 촉진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관광산업 복·융합화의 전략적 추진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기대효과 분석 등 정책추진 지원

Ⅲ. 의료관광 현황 및 잠재력 분석

1. 의료관광 육성의 필요성

1)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 고령화가 이미 진전된 선진국들의 2003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990년에 비해 미국 2배, 스위스 1.85배 증가하는 등 지출금액이 급속 증가추세에 있음

<표 8>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

	1990	1995	2000	2003
미국	2,738	3,654	4,539	5,635
스위스	2,033	2,579	3,182	3,781
독일	1,748	2,276	2,671	2,996
네덜란드	1,438	1,826	2,259	2,976
프랑스	1,568	2,033	2,456	2,903
스웨덴	1,579	1,738	2,273	2,703
영국	986	1,374	1,833	2,231
일본	1,115	1,538	1,971	2,139
한국	377	538	771	1,074
터키	166	185	452	513

자료: OECD Health Data(2005).

○ 향후 인구 고령화가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의료비지출이 2013년까지 중국이 연평균 6.9%, 인도 6.2%등 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9> 아시아 국가들의 민간부문 의료 서비스 및 용품 지출추이 및 전망

(백만$,%)

	1999년(A)	2013년(B)	연평균증가율
중국	25,422	64,593	6.9
인도	11,423	26,343	6.2
인도네시아	1,992	3,058	3.1
말레이시아	739	1,678	6.0
필리핀	1,259	2,173	4.0
태국	4,591	7,868	3.9
베트남	1,516	2,696	4.2
한국	16,484	30,586	4.5
홍콩	4,786	8,505	4.2
대만	19,274	36,759	4.7
싱가포르	2,073	3,930	4.7
일본	301,085	421,974	2.4
아시아 계	390,644	610,163	3.2

자료: 유로모니터 전망 2001

2) 의료산업의 경쟁·개방의 확대 및 원격진료기술의 발전

○ 원격의료의 확대에 따른 국경 간 진료가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함

○ 의사 원격상담, 병원 간 CT, MRI등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의료영상 전송 서비스 등이 이미 상용화 됨

○ 병력, 수술력, 알레르기, 유전자 정보 등 개인의 정보를 포괄하는 스마트카드를 인터넷과 연결, 원격진료가 가능해질 것임

○ 서울대병원의 경우 초고속망을 이용, 원격 청진기와 원격 사진기를 갖춘 '재택 원격진료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의사와 병원이 동일한 보건의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환자가 어디에 있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 개방경제하에서의 의료시장 개방 압력 예상됨. DDA 협상 시한이 (2006년말) 다가오고 있고 한·미 FTA협상에서도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논의될 예정임

- 선진국의 개방 압력이 높은 서비스에서의 개방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의료시장 개방은 외국 병원 진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제도 도입, 기존 건강보험체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3)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국제적 이동 증가

○ 인력 이동의 자유화, 관광의 증가로 WTO 자유 경쟁 체제하 개방의 범위가 상품→서비스→인력으로 확대됨

- 태국 민간병원 방콕 병원의 내시경 무릎 관절 수술비는 (왕복 비행기값, 수술비용, 파타야 해변 1주일 휴양을 포함한 3주간의 모든 체재비용이) 5000달러인데 반해 미국에선 수술비만 6500달러임
- 이에 따라 다수의 미국・유럽・일본인 환자들이 태국으로 유입됨

○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에 따른 고소득층 증가함

-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월수입 7천500위안(元) 이상인 도시부유층 근로자가 급속 증가추세에 있어 2004년 기준 인구의 15%인 6천5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진국의 무 의료보험자들 원정치료 증가함

- 미국의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인구의 15%인 4,5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재미교포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율이 미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교포환자의 국내유치 가능성 높음

○ 병원공급이 부족한 유럽권 및 중동권 환자 원정치료 증가함. 과다 복지정책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환자적체가 심하며, 동유럽권과 중동권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들 국가에서 아시아권으로 국

제 의료관광객의 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동국가들의 병상 수는 OECD평균의 1/4수준이며, 이에 아랍에미레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럽으로 송출되는 환자비용이 1년에 2,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10> 중동지역 병원현황(2004년)

국 가	인구 1천명당 병상수	병상가동률 (%)
레바논	2.9	56
아랍에미레이트	2.9	52
이집트	2.1	37
요르단	1.8	60
튀니지	1.7	64
이란	1.6	54
OECD	8.3	80

자료: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 국내 의료관광 현황

가. 의료관광 수요측면

○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외래관광객들의 방문 목적상 건강 및 치료 목적의 비율은 2003년 0.3%, 2004년 0.1%, 2005년 0.2%를 기록함

<표 11> 연도별 한국방문 목적

(단위: %)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사업 또는 전문활동	43.7	42.7	43.4	37.4
여가/위락/휴가	42.2	44.4	39.7	50.8
친구, 친지 방문	9.5	7.8	7.4	7.8
종교 및 순례	0.9	1.1	0.8	0.9
건강 및 치료	0.2	0.1	0.3	0.2
기타	3.6	3.9	8.4	3.0

자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05

○ 현재 입국통계에서 의료관광객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은 없음. 따라서 방문 목적상 건강 및 치료 목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외래관광객 중 의료관광객수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12> 의료관광객수 추정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외래관광객수	6,021,764	5,818,138	4,752,762	5,347,468
의료관광객수	12,044	11,636	9,506	10,695

자료: 외래관광객수 * 방문목적상 건강·치료 목적 비율을 기준으로 연구자 추정

○ 방한기간 중 건강 및 치료활동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중복응답)은 2004년 10.1% 2005년 9.1%로 나타나 방한 외래객 10명중 한 명 정도는 건강 및 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잠재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3> 외래 관광객 방한 중 활동(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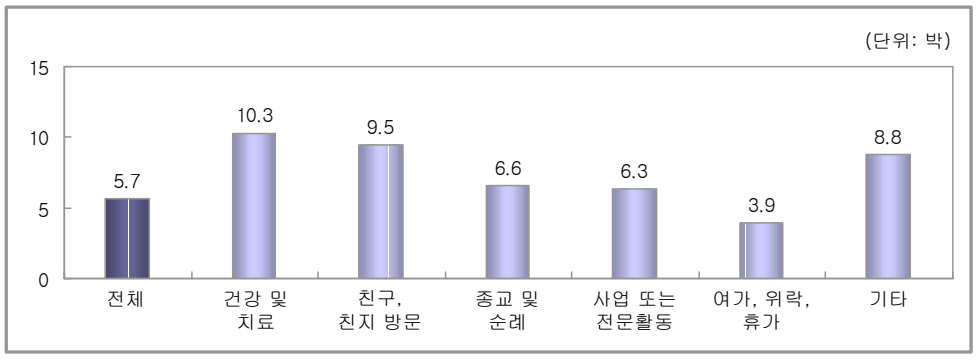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관광/오락	92.1	92.3	94.8	90.7
비즈니스 활동	44.4	43.7	43.8	38.2
건강/치료	9.1	10.1	9.6	8.8
종교/순례	3.0	2.9	3.1	3.1
경유/기타	6.2	5.9	6.9	4.8

자료: 한국관광공사(200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외래관광객의 목적별 평균 체재기간 분석결과를 보면, 2005년 외래객의 평균 체재기간은 5.7박으로 나타난데 비해 건강 및 치료 목적 방한객의 경우 평균 10.3박으로 일반 관광객의 두 배 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방한목적별 평균 체재기간



자료: 한국관광공사(200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나. 의료관광 상품화 추진 사례

1) 우리들병원의 '국제환자센터' 운영

○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6)]

- 2003년 192명, 2004년 285명, 2005년 32개국으로부터 총 411명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4.5%로 나타남
- 외국인 방문자의 비중을 보면 미국 방문자가 186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중국 70명, 캐나다 42명, 일본 19명 순으로 나타남

○ 우리들국제환자센터(WIPC)를 설치하여 의료관광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상담지원 : on line and off line, 콜센터 지원
- 비자발급 지원업무 : 초청장발송, 보증금제도 실시(중국인)
- 방문계획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 통역 및 비서 서비스 제공, 공항 배웅, 마중서비스 제공
- 원무 관련 서비스 제공 : 각종 서류 발급
- 국내외 외국인의 보험사 업무 처리
- 여행정보제공, 편의시설 제공(수술전, 동반자)
- 동반가족을 위한 각종정보제공
- 설문지 통한 자료수집

2) 청심병원 '일본인 대상 분만 패키지' 운영

○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7)]

- 2005년 외국인 환자 1만7797명, 1일 평균 33.3명
- 통일교 재단 병원으로, 외국인 환자의 80%가 통일교 신자

---

6) 우리들병원(2006). 외국인 환자유치 및 전망. 의료관광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

7) 주간조선 2006년 2월 22일자

-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중국, 러시아, 몽골 등에서 환자들 입국, 외국인 환자의 85%는 일본인

○ 일본의료진 고용 (총37명)

- 일본인 의사 4명(일본과 한국 의사 면허 동시소유), 간호사, 의료기사, 일본인 환자만 담당하는 전속 환자코디네이터 2명(외국인 환자의 입원 수속부터 퇴원 시 병원비 정산까지 처리, 3개 국어 능통)
- 국제 표준 진료수가(우리나라의 1.5배)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본국에 돌아가 환급 받을 수 있음. 일본의 사회보험공단이 이곳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서를 인정

○ 일본인 대상 "분만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2005년 일본인 산모 분만 건수는 250여 건 (비용 : 항공비, 분만비용 포함 35만엔 수준)
- 남이섬 관광 유람선 운항 : 병원 선착장에서 남이섬까지 유람선 운항
- 2006년 상반기 도쿄에 판촉사무소 개설 예정
- 프로그램
  - 산전관리 : 출산예정일 40일 전 수련원에서 기거하면서 산전 관리
  - 분　　만 : 일본식 분만문화 유지
  - 산후관리 : 출산 후 2주간 한방요법 산후조리와 찜질방

3) 경상북도 '해외지역 헬스투어 한국(경주)로'

○ 2006년 3월부터(제 1회) 일본 오사카지역 민간단체와 주민들을 유치해 경주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식 및 온천체험과 함께 건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하는 헬스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함[8)]

○ 경주를 중심으로 헛제삿밥과 비빔밥 등 서민음식과 전통 요리를 맛보고 옛 한국인의 건강비법을 체험하고, 경부꽃마을병원 건강검진과 함께 울진온천을 체험하는 건강프로그램임

---

8) 연합뉴스 2006년 1월 17일자

○ 오사카부립 건강과학센터에서는 건강여행 해외판 1호를 한국으로 결정해 경주, 울진온천 등 경상북도를 일본인에게 홍보함

4) (주)Medifriend의 '한국방문 미용 성형단'

○ Medifriend는 2003년 2월 북경에 중국현지법인(美得富;Meidifu)을 설립,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국제의료관광사업 추진함[9)]
- 국내 40여개 성형외과와 협력병원을 체결, 외국인을 유치해 관광과 함께 성형, 라식, 피부미용 등의 프로그램운영 중임
- 중국 내 중국국제여행사(CITS) 및 중국여행사(CTS) 등의 국제 여행사와 협력을 통해 '한국방문 미용 성형단'을 모집하여 관광객 유치함

○ (주)한진관광과 해외의료 관광객 유치에 관한 제휴를 실시함. 메디프렌드에서 해외관광객에 대한 여행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한진관광측이 비자 수속, 운수기관, 숙박시설, 여행가이드 등의 제반시설 수배업무 및 서비스 업무를 수탁함

5) 꽃마을경주한방병원 '한방건강여행'

○ 보건관광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001년 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함

○ 선조들의 숨결이 스며 있는 경주 관광프로그램과 건강이상여부 검진과 한방치료를 받고, 한방 치료 프로그램 대상을 직장인, 가족, 개인 등으로 세분하여 추진함
- 영상물 감상, 생혈액 분석 체험, 한방 추나 요법, 사상체질 및 경락기능검사, 아로마 체험, 한의사 문진과 진맥·처방 등

○ 헬스투어 프로그램(2003년 기준)은 2시간부터 3박4일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구성됨

---

9) 데일리메디 2006년 4월 4일자

- 1일차 : 접수→예진상담→ 검사 및 판독(양·한방협진)→전통한방치료 및 기타치료→경주박물관 관람→석식(쌈밥) 휴식 및 자유 시간
- 2일차 : 고적답사(천마총, 불국사, 포석정)→경주 남산 등 유적지 관광

○ 전문여행사 연계 헬스투어 상품이 매주 수, 금, 토 3차례 진행됨

- 오전 10시15분 서울역에서 KTX로 출발, 동대구 역에 11시48분에 내린 뒤 연계버스로 병원까지 이동, 병원 측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검진을 마친 뒤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숙박한 뒤 이튿날 불국사, 기림사, 감은사지 3층 석탑, 문무대왕릉 등을 관람한 뒤 동대구에서 오후 5시50분 열차로 귀경함
- 20만4,700원(4인1실 기준) 프로그램의 경우 왕복 고속철도운임, 연계버스요금, 호텔숙박, 식사, 진료비 등이 포함됨

[그림 5] 꽃마을경주한방병원 원내-1

[그림 6] 꽃마을경주한방병원 전경-2

6) 울산 초락당 '유기농식사와 황토방'

○ 치료시설로는 녹용 목욕 외 한약재로 한 약재목욕을 할 수 있는 약재목욕치료실, 한약재를 섞어 만든 황토돔 황토한증초고온 치료실, 약과 침을 동시에 시술하는 팔강약침치료실, 금과 백금으로 만든 침두위에 뜸을 병행하는 구두침 치료실 외 물리치료실, 명상치료실, 다다미휴게실 등이 있음

○ 기타시설로는 각종 질환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초락한의학 연구소, 유

기농채식위주의 식단을 제공하는 동의보감식당, 동의보감 처방에 의거한 한방차를 제공하는 오행다도실을 비롯하여 농가를 방문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농부의 밥상, 초락민속박물관, 초악당 등이 있음

○ 헬스투어 프로그램으로는 해독요법을 시행하고 있음

- 해독요법 : 종합검사 -> 약재목욕 -> 치료실시 -> 온열치료 -> 약재복용 -> 침구치료 -> 종합재검진 -> 개개인에 맞는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그림 7] 울산 초락당 전경-1

[그림 8] 울산 초락당 전경-2

7) (주)GHR의 온천병원호텔 '다스큐어하우스'

○ 유성온천을 기반으로 휴양과 의료를 충족시키는 온천병원호텔 다스큐어하우스(DASKURHAUS)는 을지병원과 제휴를 통해 PET-CT 건강검진과 휴양, 호텔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숙박, F&B 패키지(호텔온천 및 식사), 기타서비스 중에서 환자나 가족관광객이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함

8) 명동과 부산 서면의 '성형외과 타운'

○ 명동지역 성형외과, 치과를 중심으로 일본인 의료관광객 급증하여 부산

의 서면메디컬센터, 메디컬 존 등 대형 전문 의료 빌딩들이 의료타운 확장 형성하여 19곳의 성형외과 성행[10] 중임

다. 의료 관광 단지 개발 추진 사례

1) 무주 메디컬센터 '웰빙센터'

○ 차별화된 의료요양과 생태체험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선진국형 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전라북도 무주군 245만 평 부지에 의료관광 단지 건설 중에 있음

<표 14> 무주 메디컬센터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 덕산, 공정리 일원
면적	8,095,686㎡ (245만평)
기간	2006년 ~ 2015년
제안자	공동제안 (무주군 · 대한전선)

자료: 무주군,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홈페이지

○ 한방 웰빙센터, 노인전문병원, 뷰티클리닉, 성형클리닉, 헬스케어센터 및 스파, 요양주택, 등 메디컬 웰빙센터와 피트니스&스파,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임

10) 부산연합 뉴스 2006년 3월 12일자

<표 15> 무주 메디컬센터의 세부 도입시설 및 주요활동

구분	특성	세부도입시설 및 주요활동
메디컬 웰빙센터 (MedicalWell-being Center)	종합의료기능 청정 환경을 활용한 요양기능	• 한방 웰빙 센터, 노인전문병원 • 노인주거보호시설, 장기의료 요양시설, • 뷰티클리닉, 성형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피트니스, 스파 (Fitness & Spa)	자연 친화적 입지를 활용한 종합적인 건강, 미용센터	• 헬스케어센터 • 아로마 테라피 센터 및 스파 • 피트니스 시설
리타이어먼트 빌리지 (Retirement village)	분양과 임대가 가능한 노인의료 복지시설과 휴양을 목적으로 한 시설	• 일반 요양주택 • 의료시설 :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등 • 체육시설 : 수영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 부대시설 : 식당, 로비, 상담실 등

자료: 무주군http://www.muju.org/ , 건설교통부 기업도시 홈페이지http://enterprisecity.moct.go.kr/

[그림 9] 무주 메디컬 센터

[그림 10] 무주 메디컬 센터

2) 인천 송도 'NYP병원'

○ 인천 국제도시 송도 1공구 내에 미국의 NYP 병원이 600병상(모두 1인실) 규모로 심장과 암 등 6,7개 질병 특화치료 센터를 개발 중임

○ Philadelphia International Medicine(펜실베니아 대학 메디컬센터 등 필라델피아 직영 9개 병원이 대외업무를 위해 연합하여 설립한 컨소시엄)과 병원설립을 추진 중임

<표 16> 송도 NYP 병원 개발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인천 국제도시 송도 1공구
면적	약 2만 5000평(743,700㎡)
기간	2006 ~ 2008년 12월 완공예정
사업비	NYP(6억 달러), 국내(1억 달러)
제안자	인천국제도시개발센터, NYP(미국 뉴욕장로병원), 연세의료원

자료: 인천국제도시 보도자료, 서울 신문 2006년 5월 10일자

3) 제주국제자유도시 '휴양형주거단지'

○ 청정 환경과 기후조건, 지리적 경쟁력을 활용하여 주거, 레저, 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시설 개발하고자 함

○ 휴양시설로는 콘도미니엄, 특수시설은 보양종합센터, 전문병원을, 연구시설에는 스파, 타라소, 아로마 등 보양관련 전문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임

<표 17> 제주 휴양형주거단지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서귀포시 상예동(633-3번지) 일원
면적	약 226천평(747,000㎡)
기간	2003 ~ 2009년
사업비	약 4,366억원 (공공 780억원, 민간 3,586억원)

자료: 제주 국제 자유도시 홈페이지 http://www.jdcenter.com/

4) 부산 암센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치료·휴양·관광기능 겸비한 환경 친화, 환자 중심 병원,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하고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11]을 설립함

○ 병원 및 연구시설로 304개 병상, 전문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방사성의

11) 서울신문 2006년 5월 10일자

학 연구센터 연구시설,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시설 및 해송군락은 보존, 해맞이광장, 반사연못, 테마정원등 환경친화 병원 등이 있음

<표 1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 47 일대
면적	2만 2247평
기간	2006년 3월 ~ 2008년 완공, 2009년 개원
사업비	1223억원(국비 267억원, 의학원 637억 원, 부산시와 기장군 319억 원)

자료: 서울 신문 2006년 5월 10일자

5) 원주 '양 · 한방 의료관광단지'

○ 의료건강도시의 컨셉에 맞는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원주시 호저면 일대 34만평에 첨단 의료 건강 특구 조성을 목표로 하여 클리닉센터, 콘도, 호텔, 펜션, 실버타운, 골프장, 워터파크, 한의학 박물관 등을 건립함

<표 19> 원주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 일원
면적	34만 여 평
기간	2008 ~ 2011년 완공
사업비	민자 4,200억원, 현대 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원주시와 상지대, 연세대 등이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자료: http://healthycity.wonju.go.kr, 국민일보 2005년 10월 12일자

6) 제주 '우리들웰니스리조트'

○ 제주 서귀포시에 37만평 부지에 1800억원을 들여 메디컬센터와 리조트 건설계획[12]을 갖고 있음

○ 도입시설로 골프장 18홀, 콘도 (70실), 공연장, 메디컬센터(100병상, 연면적 3817평) 내에 척추전문병원, 척추클리닉, 건강검진센터, 재활트레이닝센터 건설 계획을 갖고 있음

○ 2005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6년 6월 부지 매입 중임

<표 20> 제주 '우리들웰니스리조트'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서귀포시 상효동 산 26번지(돈내코 유원지)
면적	123만 9000㎡(37만 평)
사업비	1808억원
사업자	(주) 우리들웰니스리조트

자료: 제주 뉴시스 2006년 5월 16일자

7) 제주 '웰빙테마타운'

○ 제주개발센터와 의료선진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주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스파,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함

<표 21> 웰빙테마타운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부지 미선정
면적	30만 평
기간	2006~2010년 12월
제안자	JDC, 의료선진화위원회(대통령자문기구)

자료: 제주 뉴시스. 2006년 6월 26일자

○ 협력 분야 및 추진계획

- 업무제휴 협약 : 서울대학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 협력분야 : 선도프로젝트관련 건강의료시설분야, 국무조정실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사 및 지원업무

12) 2006년 5월 16일자 뉴시스 보도, 서울경제신문 2006년 5월 15일자

8) 제주 '한방 관광파크'

○ 서귀포시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 관광파크에는 약초재배단지, 약초가공시설, 한방체험수련원, 한방 메디컬센터가 들어설 예정함

<표 22> 한방관광파크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
면적	18만 4000평
기간	2006~ 2008년
사업비	1808억원
사업자	서귀포시, 대한한의사협회

자료: 동아일보. 2006년 2월 24일자

3. 한국의 의료관광 잠재력 분석

가.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

○ 국내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13] 결과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 대비 76%, 일본 대비 85%, 유럽의 87% 수준임

○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비보험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분야와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진료지원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대비 서비스 수준 80% 이상 : 치과(91%),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이상 89%), 진단검사의학과(87%), 이비인후과(86%), 진단방사선과(81%), 성형외과, 피부과(80%)등 9개인 것으로 나타남

13) 이윤태(2006). 의료관광 미래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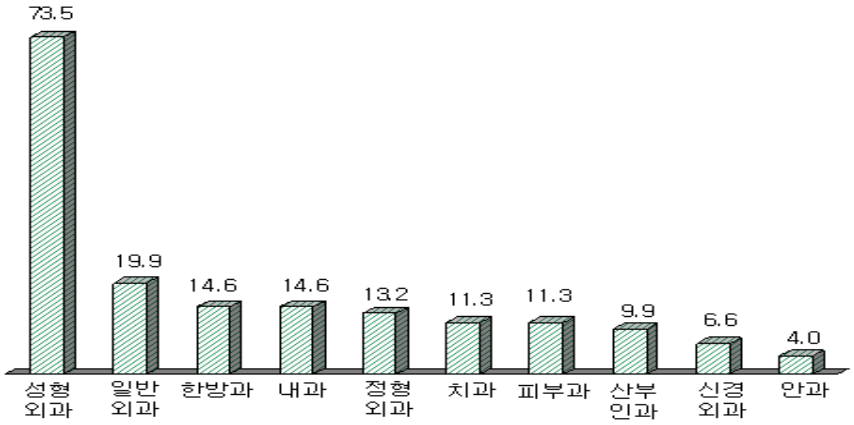
- 일본보다 앞서는 분야는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임
- 유럽보다 앞서는 분야는 피부과, 치과 등 2개로 조사됨

○ 의료기술 수준 조사결과(대한의학회, 2004)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81점 이상이 대부분으로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대등한 기술 및 개발능력을 보유함

- 위암, 유방암은 100점, 폐·간·대장암 98점, 자궁경부암 94점 등 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인공 와우·간·신장·골수·조혈모세포 등의 이식기술은 90점 이상으로 평가됨
-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고혈압·당뇨·치질·백내장 뇌경색 등의 의료기술이 우수함
- 흉부외과가 96.1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 순환기내과, 일반외과 순으로 나타남
- 마취과·방사선종양학과 등 암·심장 질환을 많이 다루는 진료 과목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의료관광에 적합한 전략진료과목에 대한 설문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실시 결과, 성형외과가 73.5%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성과가 있을 진료과목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일반외과'(19.9%), '한방과'(14.6%), '내과'(14.6%)순으로 나타남. 기타 응답으로는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대체의학'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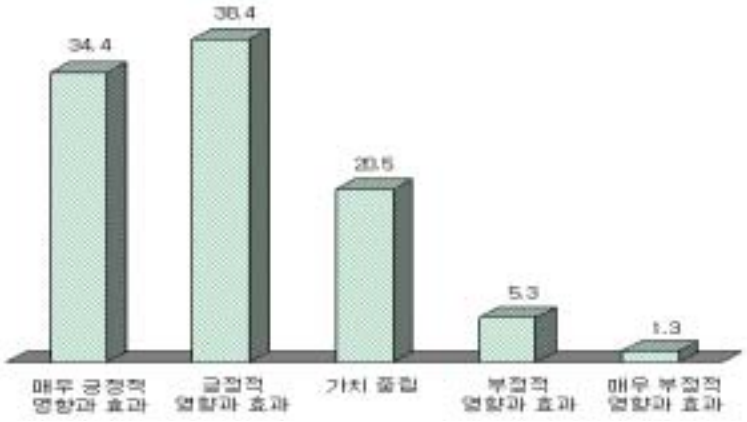
[그림 11] 의료관광에 가장 성과가 있을 진료과목



자료 : 이윤태(2006). 의료관광 미래 발전 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용

○ 의료관광사업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2.8%로 부정적인 견해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그림 12] 의료관광사업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N = 151, %)



자료: 이윤태(2006). 의료관광 미래 발전 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용

○ 의료관광을 위한 특성화된 국내의료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됨

- 설문조사 의료기관의 69% 정도는 외국환자에게 제공할 특화된 서비스가 있

다고 응답함

- 특화된 서비스로는 치과는 임플란트, 심미수복 등, 일반진료 분야에서는 미용성형, 최소침습시술 등, 한방에서는 중풍재활, 침구과 등을 내세우고 있음
- 특화된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는 시술들은 가격경쟁력, 기술적 우위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판단되며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유치활동으로 서비스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표 23>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보유 수준

구분	특성화된 의료서비스가 있다	특성화된 의료서비스가 없다	계
비율	69%	31%	10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지원방안연구

<표 24> 특성화된 의료서비스 분야

구분	특성화된 서비스분야
치과	임플란트, 보철, 심미수복
안과	라식, 라섹, 에피라식, 눈성형 등
일반진료	미용성형, 척추교정, 최소침습, 척추관절수술, 불임시술, 대장항문 등
한방	중풍재활, 아토피, 침구과, 재활 등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지원방안연구

○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 외국인 환자의 대부분은 미군, 대사관, 외국기업 직원, 영어 강사 등의 국내 거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본국 치료를 고집하지 않고 한국병원을 찾는 추세임

- 미군·미대사관·기타국 대사관들은 자체 의료시설에서 해결 안되는 질병은 계약한 한국 종합 병원에 외주를 주고 있음
- 한국에서 연수받은 러시아, 몽골 출신 의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짐

나.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현황

○ 유명병원에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추세에 있음. 개인병원에는 한류열풍으로 한류스타가 시술한 병원을 중심으로 성형·미용수술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1만 1천 5백 17명으로 2001년과 비교해 92%가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삼성서울병원 60%, 서울아산병원도 74.4%씩 외국인 환자가 늘어남
-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동병원이 강점을 갖고 있는 심장수술, 이식시술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 추세임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는 치아치료와 관광 겸하는 의료관광 사례 있음

<표 25>주요 병원의 외국인환자* 진료 현황

(단위 : 명)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아산병원
2001	5,980	3,543	2,388	1,008
2002	5,362	3,481	2,520	1,380
2003	3,383	3,118	2,839	1,080
2004	11,517	5,655	2,989	1,758

자료: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자료: 서울대학교 외국인진료센터

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 미용, 성형 분야의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비보험 진료의 비중이 큰 분야가 상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용·성형분야 평균 의료기술 수준은 90점(미국 100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 기술의 평균인 80점보다 10점 이상 높음
- 이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성형외과의 대표적 시술인 지방흡입과 이식술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26> 국내 의료 기술 수준

국내 우수 진료과목	임상 기술 우수 영역	미국 대비(100점) 기술 수준 점수
치과	임플란트 수술, 악교정 수술,3차원 영상분석	91
신경외과	뇌혈관내 수술, 디스크 수핵 용해술 비 츰습적 디스크 수술	89
재활의학과	근전도검사, 연하곤간 치료	89
안과	라식, 라섹 수술, 백내장, 녹내장 수술	89
이비인후과	두경부 종양수술, 만성중이염 수술 부비종 내시경 수술, 인공와우이식술	86
진단방사선과	간암 색전술, 폐결핵 진단, 경동맥 스텐트술 간질환 및 폐질환의 영상진단 뇌졸중 혈관내 치료	81
성형외과	미세혈관 수술, 지방흡입·이식술, 안검성형술, 비성형술, 안면 윤곽수술, 유방재건술, 수지접합술	90
피부과	박피술, 피부 레이저 치료 보톡스 시술, 모발, 자가 표피 이식술	85~92

자료: 산업연구원 (2004), 대한의학회 (2004). 의료기술 기술수준 조사

○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6대 암(위.간.폐.대장.유방.자궁)의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로 치료기술 수준이 높음

- 난소암,백혈병,설암,방광암,전립선암등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27> 암환자 5년 생존율(완치율)

	한국	미국
위암	43.9%	23.3%
간암	10.5%	8.3%
자궁경부암	76.4%	72.7%

자료: 대한의학회(2004). 의료기술 기술수준 조사. (1995~2000년 기준)

라. 한국 의료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 현재의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가격 경쟁력은 높음. 의료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대표적인 처치술 및 수술비는 미국 대비 1/10, 일본대비 1/5 수준임

<표 28> 처치료 및 수술료 가격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인공 신장 투석	57	156	140	163
위내시경	28	57	120	415
충수절제술	170	205	784	1,976
담낭절제술	309	355	1,523	2,235
제왕절개술	183	282	1,554	2,364

주: 의료보험수가 적용
자료: 한국병원경영연구원(2004)

○ 검사료는 미국 대비 1/3 ~ 1/20, 일본 대비 1/2 ~ 1/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9> 검사료 가격비교

(단위 : 원)

구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요검사	1,370	5,510	2,940	13,440
EKG	18,426	30,400	25,200	61,234
혈액검사	4,220	5,700	15,750	28,000
단순 가슴사진	3,890	7,600	15,750	75,040

주: 의료보험수가 적용
자료: 한국병원경영연구원(2005)

○ 의료허브 구축에 힘쓰고 있는 싱가포르와 비교해서도 가격측면에서는 1/2 수준임

<표 30> 싱가포르 민간 종합병원과 국내병원 가격비교(비보험 적용시)

	싱가포르	한국
녹내장	80만원	40만원
출산(제왕절개)	400만원	180만원
결장경 검사	74만원	25만원
위경 검사	40만원	25만원

자료: (싱가포르)MountElizabeth Hospital, (한국)건강보험 관리공단(2005);
무역협회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과제(2006) 재인용

Ⅳ. 의료(보건)관광 상품화사례

1. 해외사례

가. 싱가포르

1) 싱가포르 의료관광 현황 및 추진주체

○ 싱가포르는 2004년 27만 명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2.9억 달러 수익을 창출하였음(싱가포르 관광청 추산)

<표 31>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수 추이

(단위 : 천명, 백만$)

	2000	2002		2003		2004		2012
환자수	165	212	(28.2)	230	(8.6)	260	(13.1)	1,000
총지출	430	550	(27.9)	650	(18.2)	750	(15.4)	3,000
부가가치	370	500	(35.1)	600	(20.0)	650	(8.3)	2,600
GDP기여	0.25%	0.3%		0.3%		0.4%		1.10%

주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환자 제외
자료: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2006).

○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까지 연 100만 명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30억 달러(GDP의 1%) 외화수입, 1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표 32>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단위: 천명, 백만달러, %)

년도	외국인 환자(천명)	수 입 (백만달러)	GDP 기여도(%)
2000	147	430	0.25
2007	500	1,500	0.65
2012	1,000	3,000	1.1

주: 2007년 이후는 추정, 자료: 싱가포르 정부, 한국관광공사(2006).

○ 싱가포르 관광청과 경제개발위원회, 무역개발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의료체계와 서비스를 알리는 복합 에이전시인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여 Singapore Tourism Board가 주도적으로 운영함

○ 'Singapore Medicine'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14]를 위해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를 통해 바이오메디 산업 및 의료 산업 관련 전반적인 정책 수립 및 관련 규제, 법령개선함

○ 또한 STB(Singapore Tourism Board)는 관광, 입국절차, 편의시설 환경개선 및 전세계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실시함. IE(International Enterprize)는 해외병원의 싱가포르 클리닉 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싱가포르 관광청의 경우 '건강관리(Health Care)'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싱가포르의 의료시스템과 각 여행사를 연계한 '건강여행 패키지'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함

○ 이 같은 성공은 경쟁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국제적 연계를 통한 고급의료서비스, 해외환자 전용 시스템 구축 등에 기인함

2) 경쟁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 2·3차 의료서비스의 80%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두 권역으로 나누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하고, 싱가포르 전체를 서쪽 NHG, 동쪽의 Singhealth로 나누어 매년 상호 평가한 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함

<표 33> 2개 그룹화 된 싱가포르 공공의료 체계

	NHG(서)	Singhealth(동)
3차 진료기관	국립의대병원(NUH)	싱가포르종합병원(SGH)
전문 진료기관	우드브릿지 정신병원	KK모자병원
2차 진료기관	알렌산드라병원 탄톡생병원	창이종합병원
국립 전문센터	국립피부센터,암연구소, 심장연구소 외	싱가포르국립암센터, 국립심장센터, 국립치과센터 외
지역의료	서부권역(Western Cluster) 보건소	동부권역(Eastern Cluster) 보건소

자료: 고대의료원(2005).

14) 무역협회(2006).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과제.

○ 가격경쟁력 강화와 인력공급 원활화를 위해 인건비 상승억제함. 의료산업 운영비의 40%이상 차지하는 의료진의 수급조절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의사면허 조건부 등록 가능한 해외 의대 수 확대를 위해 유럽,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의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의사시험 표준과 시스템 설립함

- NUS MBBS phD(싱가포르 국립대학 의학박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싱가포르에서 수련한 전문의 안정적 확보
- Faculty Practice Plan(공공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특정 시간을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의 운영

○ 조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치료 수입에 대해 세금 일부 감면, 의료서비스 관련 구입물품의 소비세(GST 5%) 감면을 실시함

- Visiting Consultant(개인 병원 의사들이 공공 의료기관에서 특정 시간 진료하게 하는 제도)가 획득한 진료비에 대해 세금 부과를 면제함
- Group relief: 한 회사에 속한 기업들끼리는 한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과 다른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서로 상쇄하여 정산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위험부담이 높은 의료 및 바이오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함

3)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바이오폴리스(The Biopolis of Asia)'를 기치로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유치하고 R&D공동 센터를 설립하고, Wyeth, Schering-Plough, GlaxoSmithKline 등 세계적 제약회사를 유치하고 Pharmacia, Eli Lilly, ViaCell와 공동 R&D센터를 설립함

○ 국제 추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동남아 의사 활용하고, 국제 및 동남아 지역 내 의료회의, 전시회 및 연수 등 다수 개최함. 동남아 내 대학병원 및 의료기관에 투자하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싱가포르방문단'이라는 의료 무역단을 조직함

○ 세계적인 의료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하고, 싱가포르종합병원과 미국 지마연구소, 탄톡셍 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미국 듀크대학과 제휴함

4)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 운영

○ 래플스, 파크웨이 병원 등은 해외환자 전용서비스센터(International Patients Centre)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

- 진료예약, 항공권 구입, 숙박 및 관광, 공항 픽업, 통역, 환전, 개인 맞춤서비스 등 제공

5) 싱가포르의 유명 민간병원 사례

○ 파크웨이 홀딩스(Parkway Holdings)의 경우 외국인 전담 클리닉 및 고객 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언어별로 자국 언어가 가능한 도움요원이 상시 배치
- 병원 방문 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수속 가능

○ 싱가폴 내 3개, 기타 동남아시아 등에 총 11개의 병원 운영하고 10 개국에 40개 연락사무소 운영하는 해외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이를 통한 2004년 경상이익 8,000만 달러에 이름

○ 래플즈 병원(Raffles Hospital)의 경우 네트워크 경영을 통하여 60개의 1차 진료기관에서 의뢰를 받고 있음. 싱가포르 내 13개 센터 및 클리닉 보유, 홍콩에 4개의 클리닉 운영, 12개 나라에 50개 에이전트 운영[15]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써 병원이 주식시장 상장되고 자본을 투자받아 운영 및 확장할 수 있음

○ 의사의 봉급구조는 기본급, 실정에 따른 인센티브, 소유주식 지분에 따른 배당금으로 차등 지급됨. 활발한 국제 마케팅으로 외국인환자 비율이 30 ~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50% 차지하고 있으며 샴쌍둥이 수술 등 대규모 마케팅으로 명성을 떨침

나. 태국

1) 태국 외국인 의료관광 현황

○ 태국은 아시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해외환자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해 왔음

○ 태국 정부는 외래 관광객의 40%를 의료관광객으로 보고 있으며 관광과 의료서비스 연계하는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있음

○ 해외환자 유치는 평균 27% 가량 성장하여 2005년 128만 명, 8.9억 달러 외화수입을 달성함

<표 34> 태국 민간병원의 해외 의료환자 유치 실적(2001~05년)

(단위:만 명,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해외 환자수	55	63	97.4	110.3	128
증가율	38	14.5	54.5	13.2	16

자료: Kasikorn Research Center of Thailand

○ 태국병원 총 1300개 중 75%가 국공립병원으로 국민 기본 공공의료를 보장하면서도 태국의 경쟁우위 산업인 관광과 의료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상무부와 관광청의 적극 후원 및 홍보함

○ 태국 병원들은 푸켓 등 휴양지와 연계하여 2002년에는 33개 태국 민간병원에 총 63만 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2003년에는 97만 여명을 유치, 264억 바트(약 7,532억원)의 매출을 달성, 2005년에는 128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330억 바트(약 8,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있음

○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규모는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음
- 태국의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어 주식상장이 가능하며, 태국 12개 의료관련 상장 기업들 주가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주가지수의 상승률은 2003년 전체 주가상승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임

○ 의료부문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위해 여타 서비스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외자유치 지원정책 추진으로 관세 및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제도를 동일 적용하고 있음
- 외국투자자가 태국 병원에 총 지분의 49%까지 투자 허용함
-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태국 주식시장에 상장(2005년 9월 기준)됨

○ 민간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를 위해 영리법인으로 주식시장에 상장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허용 및 규제 완화로 활성화 도모하고 있음
- 민간 병원들의 의료 수가 책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으며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범룽랏 병원 등 주요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은 태국병원의 3~4배, 개인의원의 약 10배임

○ 이 같은 성공요인은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 국제적 인증을 통한 신뢰감 확보, 의료·건강관리서비스·허브상품의 동반성장 등에서 찾을 수 있음

2)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주요 해외 의료관광객은 일본(16.7%), 미국(8.7%), 영국(7.6%), 독일인(3.8%) 순으로 선진국이 높은 순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 기준, Export Promotion Department of Thailand,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35> 국적별 의료관광객(2004년)

국가	방문객수	전년대비 변화율(%)
일본	247,238	51.76
미국	118,771	39.25
남아시아	107,627	54.69
영국	95,941	28.17
아세안	93,516	154.76
중동	71,051	104.73
대만/중국	57,051	22.36
독일	40,180	8.43
호주	35,092	44.84
프랑스	32,409	26.69
한국	31,303	59.81
스칸디나비아	20,990	5.74
캐나다	18,144	40.56
기타	133,782	-59.67
합계	1,103,095	13.31

자료: 한류관광세미나(2005), 한국관광공사

○ 태국 민간병원협회는 선진국 고령자를 타겟 시장으로 선정하여 다른 국가와 차별화함.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장기 투숙·요양을 위한 휴양리조트, 여가 프로그램, 일대일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3) 공신력 있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인증

○ 자국 내의 병원 시설과 의료진 수준에 대해 국제병원인증원(International Hospital Accreditation Institution)의 인증 획득함으로서 대외적 신뢰를 구축하였음

4)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브상품의 동반성장

○ 태국은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스파, 전통마사지, 허브상품 등이 융합된

복합의료관광 시장기회 창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 관광 뿐 아니라 건강관리 서비스, 허브상품 관련 수입이 매년 30% 성장이 전망됨

<표 36> 태국 보건부의 의료관광 부문 5개년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의료서비스	496	584	693	831	1007
건강관리 서비스	126	170	232	315	429
허브상품	39	50	75	101	176

주: 1달러당 39.55바트를 기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

5) 태국의 유명 민간병원 사례

○ 범룽랏 병원 (Bumrungrad Hospital)의 경우 200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병원평가위원회(JCIA)로부터 인증받았으며, 2003년에만 30만 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하였음

○ 2004년 방문한 환자 90만 명 중 35만 명이 154개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환자, 그 중 60%는 태국거주외국인, 10%는 관광객, 30%는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남

■ 특화전략

① 최고급 의료진 및 의료시설대비 바 외국병원에 비해 50%~70% 저렴한 가격이 최고 강점 : 입원비 $20(미국: $150), 척추수술비 $6,000 (미국: $20,000), 600여명의 스텝(이 중 미국 의학박사 소지자 200명)

② 주요 목표시장은 태국 부유층과 외국인(미국, 중동 환자 중심)

③ 제삼자 진료비 부담을 인정하며 60여종 해외의료보험 및 응급조치기관들과 협력

④ 병원비, 의사진료비 및 입원실 비용이 기본으로 포함된, 비용 면

에서 유리한 다양한 의료패키지 상품개발

■ 성공적인 병원마케팅 전략

① 한국어를 포함한 14개 국어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통역 운영
② 진료와 휴양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제공
③ 병원마케팅을 위한 국제학회장 참가
④ 전 세계를 돌며 병원 홍보 로드쇼 개최

■ 의료 관광

① 병원과 여행관련협력기관이 연계하여 관광패키지 안내 및 공항 픽업서비스를 위시한 제반 서비스 제공
②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국제 봉사센터의 설치
③ 입원환자의 예산에 맞출 수 있는 최상의 편의시설 완비
④ 8개국에 영업사무소 설치, 미국인 전담 지원 조직 보유

○ 태국 메디컬 스파센터는 태국 치앙마이의 대형 병원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방콕 소재 세인트루이스 종합병원이 국내외 관광객과 승무원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메디컬 스파를 운영함

- 자체 호텔형 객실 66개를 소유하고, 각종 스파 관련시설 및 운동 처방 시설, 전문 의료인과 스파 테라피스트가 상주하고 있음
-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크게 Day Spa Program(6시간), Half Day Spa Program(3시간)등이 있음

다.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현황

○ 의료 관광 외국 환자와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2004년 관광산업(RM 297억)이 외화 수입 2위, 2005년 관광객 1500만 명 입국, 2005년 외국인 환자 수는 약 23만 명이고 수입은 48억원으로 2001년 대비 환자수와 수

입 면에서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 말레이시아 의료관광객 수입 통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외국 환자수	75,210	84,585	102,946	174,189	232,161
수입(RM)	44,281,751	35,579,051	58,900,000	104,980,000	150,920,000

주 RM 151 million = 48억 3200만원, 자료: APHM[16].

○ 1998년 다양한 의료관광 관련 주체들이 협력하여 의료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작함. 주요 협력기간으로는 Ministry of Health, The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of Malaysia(APHM), Ministry of External Trade and Industry(MATRADE), Ministry of Tourism Malaysia(TM), The Hotel Association of Malaysia 등[17]이 있음

○ 의료관광 입국자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를 찾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인이 7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일본인과 인도인, 유럽인이 소수 포함되어 있음

<표 38> 말레이시아 의료 관광객 국적별 현황

국적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유럽	기타
비율(%)	72%	5%	4%	3%	16%

자료: APHM(2006). 말레카 Global Health Tourism.

16) The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of Malaysia(2006), Database & Health Tourism Committee,

17) Global Health Tourism(2006.)6th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Malaysia Melaka

○ AMSPA(Association of Malaysia Spas)의 통계[18]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표적인 30여 개의 스파 매출액이 2005년 US$ 750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스파 산업 매출액은 2003년 US$ 112억, 태국은 2004년 53억 바트로 스파와 의료 서비스의 통합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 의료 관광의 중요성

○ 의료관광이 벌어들이는 외화[19]는 2002년 RM 9000만에 다다르며, 2010년까지 보건(의료) 관광의 수입을 RM 22억으로 예상됨

○ 레크레이션 관광객보다 의료 관광객이 4배 이상의 관광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관광은 관광산업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3) 의료 관광과 Healthcare 서비스 촉진

○ 의료 관광, 레저와 웰빙, Traditional & Complimentary Medicine, 경영과 교육서비스의 4가지 핵심을 통해 의료관광과 Healthcare 서비스를 촉진하고 있음

○ 의료 관광은 Wellness 패러다임과 관광의 연계 촉진을 통하여 건강 검진(종합 검진과 특별한 검진 패키지, Well-men 검진 패키지, Well-women 검진 패키지, 진단 서비스)과 미용/성형수술로 두 분야로 양분하여 추진중에 있음

○ 레저와 Wellness분야에서는 Health Spas, 척추 지압 요법, 얼굴 피부 관리, 반사학·반사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이 있으며, 전통적 치유방법과 약

---

18) Malaysia Melaka, 6th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Global Health Tourism, SPA THERAPIES

19) Malaysia Melaka, 6th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Global Health Tourism, Product Development in Health Services

물과 스파로는 치유 목적의 약물과 스파, 은퇴자의 집(Malaysia My 2th Home) 등을 운영하고 있음

4) 말레이시아의 의료 관광 사례

○ KPJ Healthcare Berhad의 경우 말레이시아 국내 최초 Healthcare 그룹으로 선정(1994년 11월 29일)되어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 걸쳐 15개의 민간 주요 병원 소유・운영하고 있음

- 자카르타에 2개, 인도네시아 1개, 방글라데시 1개 해외병원 운영

○ 2010년 외화 수입이 RM 20억 목표이며, 국제적인 의료 엑스포 참가 등 정부와 함께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 Malaysia Airlines와 협력 체결

○ Malaysian Medical Center의 Spa 제공서비스로는 Water therapies(Floral relaxation Baths, Vichy Shower), Massage(Hot Stone Massage, Therapeutic Massage), Masques(Clay Masques, Enzymatic Masques)가 있음

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성공요인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9> 각국의 의료관광 성공요인

국 가 명	성 공 요 인
싱가포르	경쟁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 운영
태 국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공신력 있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인증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브상품의 동반성장
말레이시아	가격경쟁력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헬스케어 프로그램 보유
	말레이시아 정부 인증과 국제적 인증(The MS ISO 9002, MSQH) (MSQH : the Malaysia Standard Quality of Health)
	의료진과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자료: 한국경제인연합회(2006).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재작성.

V. 조사 분석

1. 주요 이해관계자별 F.G.I. 조사 분석

가.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관광산업 복융합화의 전략적 추진 분야로 의료관광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본 연구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및 의료관광 분야의 전문가 및 업계의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조사를 실시함

○ F.G.I.를 통하여 본 연구조사는 당면과제의 성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과 관련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현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됨

2) 조사 항목

○ 조사항목은 의료관광객 유치관련 7개 문항과 의료관광 서비스 및 수용태세와 관련 5개 문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관련 8개 문항으로 총 20개 질문으로 구성됨

<표 40> F.G.I. 조사의 주요 질의 항목

구분	질의 내용
의료관광객 유치 관련	의료 관광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료 관광 유치 여행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한국은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중국관광객 대상의 의료관광 상품 특성과 개발 포인트는 무엇인가? 여행업계의 자체 역량은 충분한가? 여행업계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의 비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관광산업과 의료업의 접목가능성,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변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 등)
의료관광 서비스 및 수용태세 관련	의료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서비스 제공 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의료서비스와 함께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융합화 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숙박부문에 있어서 의료관광객 수용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의료관광객이 국내에서 체류 및 지출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있는가? 의료관광의 주요 타겟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관련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가능성과 한계점은 어디까지인가(경쟁우위는 어느 분야)? 의료관광 활성화가 중국관광객 정체 해소책이 될 수 있는가? 의료관광 부문에서 상품화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의료관광 산업화를 위해 핵심적인 요인 및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가? 여행업의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 등 각 부문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부터 의료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조사 대상

○ 본 연구 조사의 조사 대상은 의료관광 유치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문제의 해결에 현실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여 의료관광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관련 의견을 수렴함

<표 41> F.G.I. 조사대상

구분	대상	소속	중점 조사 분야
연구 기관	이윤태 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
	강성욱 박사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
언론 및 여행사	김철중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 및 유의 사항
	김용진 사장	코앤씨 한중여행사	의료관광객 유치현황 및 애로사항
전문병원	이황 팀장	우리들병원	의료관광 추진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및 지원책
	한지열 팀장	청심병원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필요사항
컨설팅업체	홍완희 대표	Medifriend Consulting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의료지원업체	전병윤 지사장	International SOS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병원	문주영 팀장	서울대 강남헬스케어	의료관광객 유치현황 및 건의사항
	홍진경 전문의	고운세상 피부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병원 마케팅 활성화방안

나. 주요 도출결과 및 시사점

1) 규제위주 정부정책 기조

○ 보건의료분야 공급형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

- 병원을 개설할 경우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의 개설만 가능

○ 개인 병원과 의원, 클리닉 등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투자 수익 환수가 불가능함

- 비영리법인은 고급 의료수요에 특화하지 못함으로써 국내외에 존재하는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환자 유인, 알선 등에 대한 규제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

의 종류, 전문과목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광고를 통한 의료홍보가 불가능함

○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관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46조의 개정이 필요함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비영리병원 수익다각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회계감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제약 조건이 있어 실표성이 떨어짐
- 병원이 호텔업이나 관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 여행사와 연계를 하여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익성 떨어짐

○ 보건복지부 발표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 간소화 방안의 현실성 확보가 필요함

○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허용을 위해 의료법 제 30조,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 개정이 필요함

○ 병원 내 비자 연장 데스크 설치하여 치료경과에 따라 편리하게 비자연장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2) 출입국 제도 관련 문제점

○ 의료 목적의 비자 발급 불가능하며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입국할 경우 서류구비 요건 등 법적 행정적 제한이 많음

○ 의료 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은 무비자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무비자협정 국가도 최장 3개월로 장기치료 시 불편하고, 비자발급기간을 현재 3~4일에서 2~3일 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위약금 및 보증금 요구 문제

- 중국관광객에 대한 이탈자 위약금과 과중한 보증금으로 인한 의료관광객의 부담과 불법적 이탈을 조장
- 병원이 환자로부터 사전에 귀국각서를 받고 공증을 해야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문제

3)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 제정

○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병원이 기업화되는 현상을 규제하지 않고 지원해주되, 수익금이 병원 회계 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만 있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임

4) 의료관광의 가능성과 경쟁우위 분야

○ 성형·미용관광과 일반의료(외과)로 양분화하여 추진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를 선택제(성형, 검진 등 비보험)와 필수제(보험 적용)로 구분하여 필수제는 자국민 의료서비스로 철저히 공공성을 유지하여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되, 선택제를 의료관광 상품화하여 홍보 및 광고를 허용함

○ 일반의료(외과중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6대 암(위, 간, 폐, 대장, 유방, 자궁)의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로 치료기술수준이 높음을 홍보하여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성형·미용·치과 등 비보험 진료분야의 경우 평균의료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성형외과의 대표적인 시술인 지방흡입과 이식술은 선진국 능가함

○ 성형·미용 분야는 한류와 연관하여 중국과 동남아에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관광 상품화시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으리라 예상됨

○ 주요 타겟 고객으로 중국의 상위 5%와 세계 각국의 해외교포,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 주력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국내 유치와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함

5) 병원 인증제도 도입과 보험개발로 신뢰도 제고

○ 각 병원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과 절차 과정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문광부차원에서 분야별 전문병원 List화하여 책자 발간하고 등급별

인증제(무궁화) 도입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병원'이라는 신뢰감 형성 방안이 필요함

○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타깃이 되는 국가와 협의하여 의료 보험적용 연계방안 모색하고 민간보험을 개발하면 유인력이 생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험 적용되는 병원 List화하여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의 자국 보험을 일본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의 병원의 경우처럼 외국계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적용 확대

○ 의료 사고에 대한 사후 보장책을 마련하고 재경부에서 보장하는 보증보험의 개발이 필요함

6) 의료관광 서비스 및 수용태세 문제점

○ 의료진의 외국어 의사소통 문제

- 외국인 진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진과 환자간의 의사소통 불편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신이 해결되어야 함

○ 외국인 환자 수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국내 대형병원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
- 획일적인 수가로 인하여 외국인 진료의사에 대한 메리트도 전무하여 의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음

○ 서비스 마인드 부족

- 환자를 고객으로 대하는 외국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
- 의료 문화의 상이성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자의 사생활 보호(Privacy)가 취약함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통역 능력뿐만 아니라 의학용어 및 질환에 대한 지식, 진료관련 특수 훈련을 받은 의학전문 통역사 양성
- 의료진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상시 친절교육 OJT,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 조사, 외국병원의 강사 초청 교육 등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7)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외마케팅 강화

○ 해외 홍보 미흡으로 관련 의료법의 제약(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금지 및 광과 제한) 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 의료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이 알려지지 못함

○ 홍보 및 마케팅의 주체의 일원화와 의료와 관광의 연계에 있어서 법적문제와 커미션 문제 등 중간 조정기구의 설립이 절실(예를 들어 관광공사와 의협 병협 등의 대표기관 설립 추진 등)한 실정임

○ One-Stop Service Center를 통한 일괄적인 서비스 및 홍보가 필요함

○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홍보지원: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매뉴얼발간, 홍보책자, CD 제작 및 배포,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함

○ 외국 의료인력 국내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자의뢰 체계구축 및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되어야 함

○ 해외환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 입원 및 수술치료(암, 심장질환 등 포함)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상품 개발 및 유치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한류를 이용한 성형·미용 의료관광을 특화하여 대외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2. 업계 의견 조사 분석

가. 의료관광객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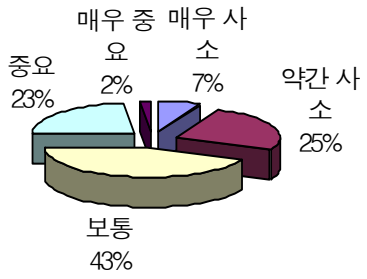
1) 규제위주의 정부정책 탈피

○ 규제위주의 정부정책 탈피에 대한 중요성 분석 결과 매우 중요 1.7%, 23.3%로 나타나 응답자의 25%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2>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 탈피 중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규제위주의 정부정책 탈피 * 평균(Mean): 3.9	매우 사소	4	6.7
	약간 사소	15	25.0
	보통	26	43.3
	중요	14	23.3
	매우 중요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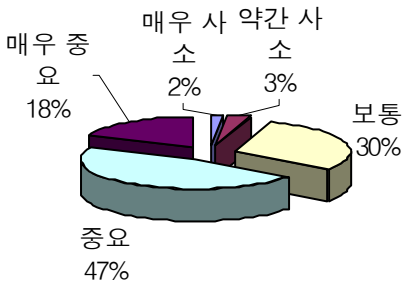
2) 의료관광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충

○ 의료관광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충에 대한 중요성 분석 결과 매우 중요 18.3%, 중요 46.7%로 나타나 응답자의 65%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3>의료관광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충 중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관련 국제적인네트워크 확충 (외국의료진과의 협력,외국병원과의 교류,외국의사의 국내연수 및 진료) * 평균(Mean): 3.8	매우 사소	1	1.7
	약간 사소	2	3.3
	보통	18	30.0
	중요	28	46.7
	매우 중요	11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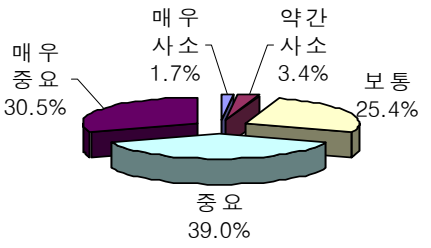
3)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제고

○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제고 중요성 분석결과 매우중요 30.5%, 중요 39.0%로 나타나 응답자의 69%이상이 중요하다고 나타남

<표 44>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제고 중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제고 * 평균(Mean): 4.0	매우 사소	1	1.7
	약간 사소	2	3.4
	보통	15	25.4
	중요	23	39.0
	매우 중요	18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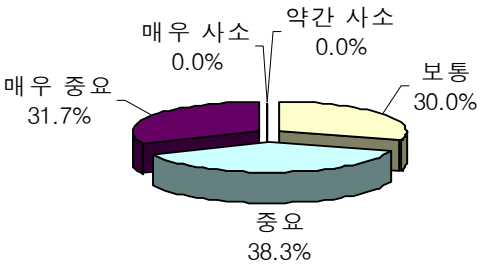
4) 언어장벽 타파

○ 언어장벽 타파에 대한 중요성 분석 결과 매우중요 31.7%, 중요 38.3%로 나타나 응답자의 70%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5> 언어장벽 타파 중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언어장벽 타파 (병원내 통역 및 언어지원 시스템 구축) * 평균(Mean): 4.0	매우 사소	0	0
	약간 사소	0	0
	보통	18	30.0
	중요	23	38.3
	매우 중요	19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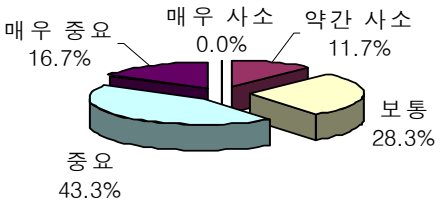
5)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 지원

○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 지원에 대한 중요성 분석 결과 매우 중요 16.7%, 중요 43.3%로 응답자의 60%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6> 국내병원 외국진출지원 중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 지원 * 평균(Mean): 3.7	매우 사소	0	0
	약간 사소	7	11.7
	보통	17	28.3
	중요	26	43.3
	매우 중요	10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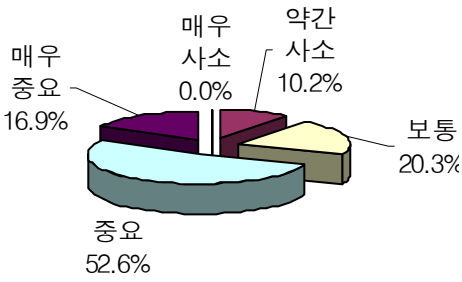
6)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에 대한 중요성 분석 결과 매우 중요 16.9%, 중요 52.5%로 나타나 응답자의 69%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7>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중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 평균(Mean): 3.8	매우 사소	0	0
	약간 사소	6	10.2
	보통	12	20.3
	중요	31	52.5
	매우 중요	10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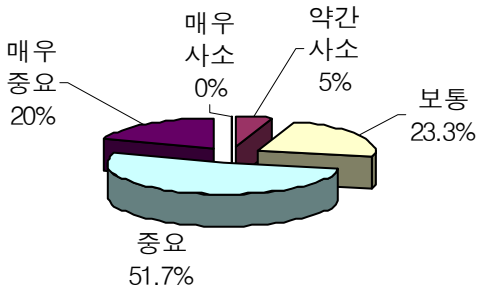
7) 관광공사를 통한 국제적 홍보

○ 관광공사를 통한 국제적 홍보에 대한 중요성 분석 결과 매우 중요 20.0%, 중요 51.7%로 나타나 응답자의 71%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8> 관광공사를 통한 국제적 홍보 중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관광공사를 통한 국제적 홍보 * 평균(Mean): 3.9	매우 사소	0	0
	약간 사소	3	5.0
	보통	14	23.3
	중요	31	51.7
	매우 중요	12	20.0



나. 제도적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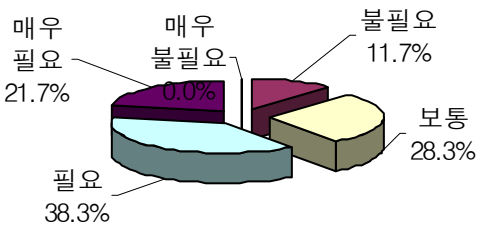
1) 병원의 관광관련 사업 진출

○ 병원의 관광관련 사업 진출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21.7, 필요 38.3%로 나타나 응답자의 6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 병원의 관광관련 사업 진출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병원의 관광관련 사업 진출(호텔업, 골프장 등)을 통한 의료관광 수용태세 확충 * 평균(Mean): 3.7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7	11.7
	보통	17	28.3
	필요	23	38.3
	매우 필요	13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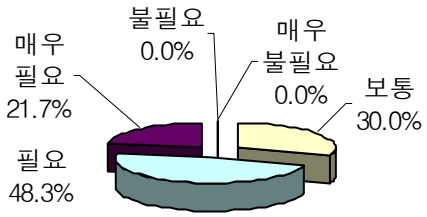
2) 의료법 개선

○ 의료법 개선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필요 21.7%, 필요 48.3%로 나타나 응답자의 7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0> 의료법 개선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법 개선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알선 등에 대한 규제완화) *** 평균(Mean): 3.0**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0	0
	보통	18	30.0
	필요	29	48.3
	매우 필요	13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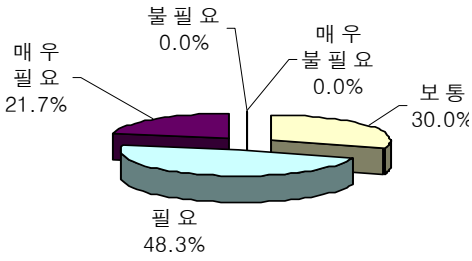
3) 의료관광 비자 제도 도입

○ 의료관광 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의 분석 결과 매우 필요 23.3%, 필요 48.3%로 나타나 응답자의 71%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 의료관광 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비자 (Medical Visa) 제도 도입 ***평균(Mean): 3.9**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6	10.0
	보통	11	18.3
	필요	29	48.3
	매우 필요	1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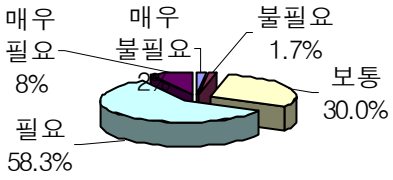
4)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 제정

○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8.3%, 필요 58.3%로 나타나 응답자의 64%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2>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 제정 ***평균(Mean): 3.7**	매우불필요	1	1.7
	불필요	1	1.7
	보통	18	30.0
	필요	35	58.3
	매우 필요	5	8.3



다.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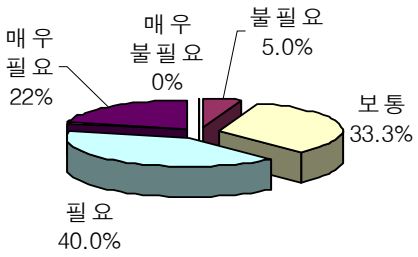
1)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개발 지원

○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개발 지원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필요 21.7%, 필요 40.0%로 나타나 응답자의 61%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개발 지원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상품개발 지원 (암, 심장수술, 척추질환, 부인과암 등) ***평균(Mean): 3.8**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3	5.0
	보통	20	33.3
	필요	24	40.0
	매우 필요	13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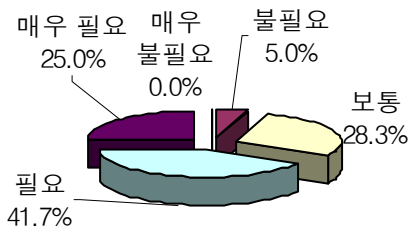
2) 현재 경쟁력이 있는 특화상품 선정 지원

○ 현재 경쟁력이 있는 특화상품 선정 지원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25.0%, 필요 41.7%로 나타나 응답자의 66%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4> 현재 경쟁력이 있는 특화상품 선정 지원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현재 경쟁력이 있는 특화상품 선정 지원 (성형,피부,미용, 종합검진 등) *** 평균(Mean): 3.9**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3	5.0
	보통	17	28.3
	필요	25	41.7
	매우 필요	1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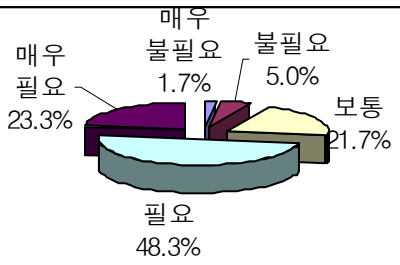
3) 의학전문 통역사 양성

○ 의학전문 통역사 양성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23.3%, 필요 48.3%로 나타나 응답자의 7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5> 의학전문 통역사 양성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학전문 통역사 양성 ***평균(Mean): 3.9**	매우불필요	1	1.7
	불필요	3	5.0
	보통	13	21.7
	필요	29	48.3
	매우 필요	1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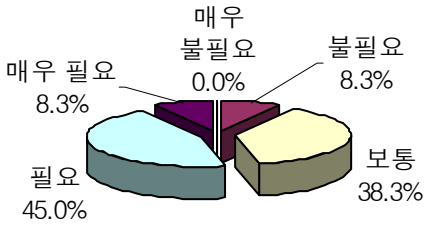
4) 병원 연계 숙박시설 확충

○ 병원 연계 숙박시설 확충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8.3%, 필요 45.0%로 나타나 응답자의 5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6> 병원 연계 숙박시설 확충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병원 연계 숙박시설 확충 * 평균(Mean): 3.6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5	8.3
	보통	23	38.3
	필요	27	45.0
	매우 필요	5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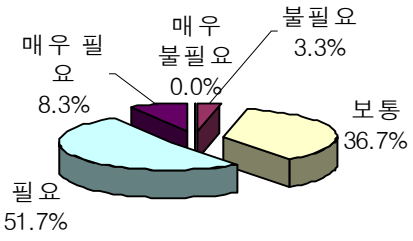
5) 의료관광 전문 Agency 육성

○ 의료관광 전문 Agency 육성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8.3%, 필요 51.7%로 응답자의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7> 의료관광 전문 Agency 육성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전문 Agency 육성 * 평균(Mean): 3.7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2	3.3
	보통	22	36.7
	필요	31	51.7
	매우 필요	5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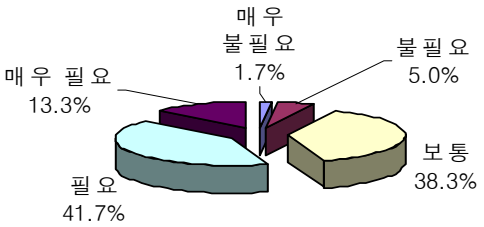
6)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필요 13.3%, 필요 41.7%로 나타나 응답자의 5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8>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필요성 분석 결과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출입국수속지원, 전문 병원 안내, 숙박예약,보험안내, 관광상품예약) * 평균(Mean): 3.6	매우불필요	1	1.7
	불필요	3	5.0
	보통	23	38.3
	필요	25	41.7
	매우 필요	8	13.3



라. 의료관광 서비스 수준 및 신뢰성 제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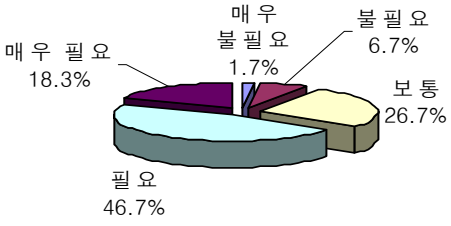
1) 병원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 도입 및 보험개발

○ 병원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 도입 및 보험개발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18.3%, 필요 46.7%로 나타나 응답자의 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59> 병원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 도입 및 보험개발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병원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 도입 및 보험개발 * 평균(Mean): 3.8	매우불필요	1	1.7
	불필요	4	6.7
	보통	16	26.7
	필요	28	46.7
	매우 필요	11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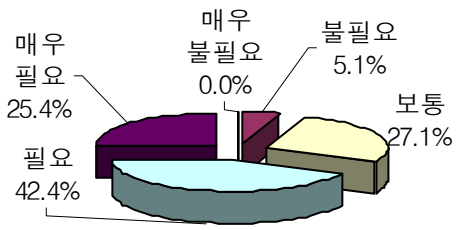
2) 국가적 차원의 의료관광 홍보 지원

○ 국가적 차원의 의료관광 홍보 지원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25.4%, 필요 42.4%로 나타나 응답자의 67%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표 60> 국가적 차원의 의료관광 홍보 지원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국가적 차원의 의료관광 홍보 지원 * 평균(Mean): 3.9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3	5.1
	보통	16	27.1
	필요	25	42.4
	매우 필요	15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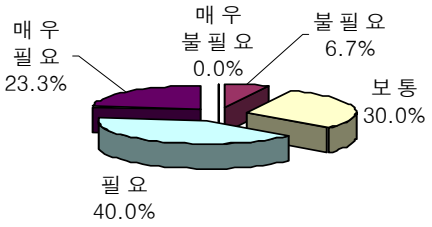
3) 의료관광 지정병원 및 인증제 도입

○ 의료관광 지정병원 및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23.3%, 필요 40.0%로 나타나 응답자의 63%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표 61> 의료관광 지정병원 및 인증제 도입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지정병원 및 인증제 도입 * 평균(Mean): 3.8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4	6.7
	보통	18	30.0
	필요	24	40.0
	매우 필요	1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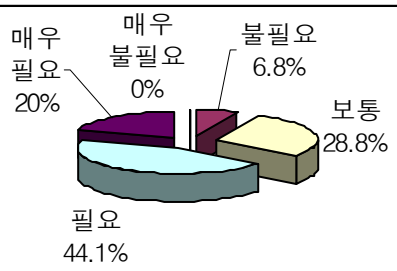
4)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육성 및 지원

○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20.3%, 44.1%로 나타나 응답자의 64%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표 62>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육성 및 지원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 육성 및 지원 (기금 및 세제지원, 인센티브 제공등) * 평균(Mean): 3.8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4	6.8
	보통	17	28.8
	필요	26	44.1
	매우 필요	12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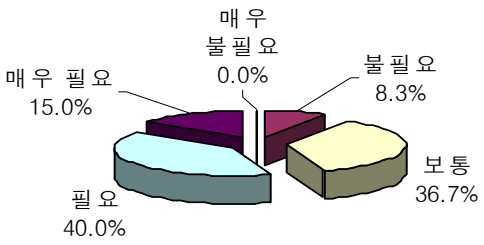
5)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분석 결과 매우 필요 15.0%, 필요 40.0%로 나타나 응답자의 55%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표 63>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필요성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 평균(Mean): 3.6	매우불필요	0	0
	불필요	5	8.3
	보통	22	36.7
	필요	24	40.0
	매우 필요	9	15.0



마.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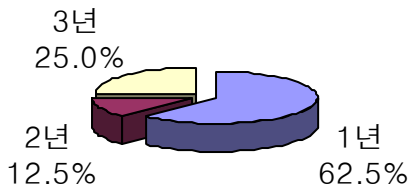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여행사는 60곳 중 8곳으로 나타났음. 그 중 62.5%가 1년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3개의 여행사(37.5%)만이 2년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서 아직 전체적으로 여행사들의 의료관광 유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8개 여행사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평균 1.6년임

<표 64>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실적

n=60

구분	실적	여행사	비율(%)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실적 *** 평균(Mean): 1.6년**	1년	5	62.5
	2년	1	12.5
	3년	2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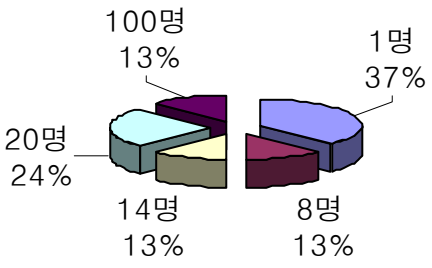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실적이 있는 60개의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유치인원을 조사한 결과 8개 여행사에서 총 143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8개 여행사의 평균 유치인원은 17.8명임

<표 65>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인원

n=60

구분	명수	여행사	비율(%)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인원 *** 평균(Mean): 17.8명**	1	3	37.5
	8	1	12.5
	14	1	12.5
	20	2	25.0
	100	1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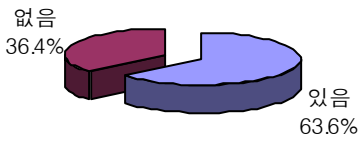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인 없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향후 유치 계획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63.6%인 14곳이 유치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표 66>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의사

n=6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의사	있음	14	63.6
	없음	8	36.4



바. 의료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한 의견 및 정책적 건의사항

○ 의료관광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여행사들을 연계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제도적 기반(정책) + 여행업계 자체 기반 공고를 통한 전반적인 여행업계 성장을 유도해야 함

○ 실버층 휴양시설 및 치료시설의 연계 또한 필요함(무공해, 청정지역, 휴양지형 등 실버층의 장기간 휴양과 심신의 치료기관)

○ 우리나라 의술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 병원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야함

○ 일반적인 규제는 축소하지만 전반적인 품질강화 정책이 필요함

○ 덤핑과 저급관광사업화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가격규제가 필요함

○ 전문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및 인증서 획득제도가 필요함

○ 선진의료시설을 갖추고 신용도를 평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의료광고 규제를 완전히 철폐(완전자유화)해야 함

○ 의료비, 약값 등 의료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함

○ 의료부문의 경우 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내에도 우수한 시설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광고에 대한 규제로 유명병원과 의사는 모두 미국에만 있는 줄 알고 있음

○ 의료 전문용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에 대한 정보, 통역 등 언어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한의원을 육성 발전시켜 세계화할 필요 있음. 한방 의료나 피부미용에 대한 홍보와 육성정책이 필요함

Ⅵ. 의료관광 복·융합화 촉진 방안

1. 제도적 기반 조성

가. 규제위주 정부 정책 기조 완화 및 합리적 개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익재로 인식해 옴에 따라 의료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수진료 관련 정부의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민건강 보험 일괄관리 및 의료 수가가 제한 등은 우리나라 병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기관으로 지정, 일괄적인 의료수가를 지정함으로써 병원들이 제공서비스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책정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증가하는 의료이용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진료과나 환자가 적은 중소병원들의 경우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과잉진료나 편법적인 비보험항목 증가 등 적절치 못한 의료행위는 증가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공급형태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현재 병원을 개설할 경우 국내의사면허 소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의 개설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고급 의료수요에 대한 대처 능력 둔화 및 병원의 특화 경영 및 해외환자 유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관광의 복·융합화를 촉진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의료의 공공성만을 중시하는 정부의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의료관광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협력하여 세계적인 의료관광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관광 산업의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복·융합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데 문화관광부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제한 완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제한 완화 및 의료기관 설립 및 자본참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인 수가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관광이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입국 전 사전 진료에 대한 의료행위 인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의사의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의료관광객의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진료는 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원격의료 허용 및 의료관광객이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 종류, 비용, 기간 등의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타국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나. 의료관광 비자(Medical Visa)제도 도입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유치 시 특히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입국할 경우 10개 이상의 서류구비 요건 등 법적 행정적 제한이 지나치게 높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의 경우 치료목적의 입국시에도 비자발급 시 초청장에 대한 공증을 요하는 등 까다로운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무비자협정을 맺은 국가라고 해도 체류기간이 최장 3개월에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관광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의료목적 입국객에 대한 신속한 승인(응급치료시), 선별적인 외과 수술건에 대한 사전승인 비자 발부 등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인 및 동반자 비자를 동일 건으로 하여 1년 만기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의료관광비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출입국 편의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비자 발급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과 발급 시 요구 자료를 초청장과 예금 잔액 확인서로 대체 하는 등 간소화), 국내 병원에서 알선료를 받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출입국 서비스 제도 개선과 함께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수익다각화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의 수익다각화 허용 범위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업 및 관광업, 주거시설 연계병원, 바이오 등 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 투자의 수익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수준의 회계투명성 요구 및 외부감사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것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광관련 사업 진출은 관련 관광사업체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관광의 복·융합화는 의료와 관광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을 통해 신수요 및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또는 관광 산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역(의료활동인지 관광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의료와 관광의 복·융합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 또는 의료부문의 제도적 틀을 넘어서는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두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하버드의대, MD 앤더슨 암센터의 경우 영리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관광버스회사, 호텔 등 관련 사업에 효과적으로 진출 또는 연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의료관광 촉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의료법 및 관광 관련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관광의 복·융합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2. 의료관광 수용태세 구축

가. 이원화된 의료관광 상품 전략 추진

미용, 성형, 종합건강검진 등 현재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화 상품 선정 지원 및 외과적 수술 및 진단방사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중장기적 육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이원화된 의료관광 상품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성형·미용·치과 등의 비보험 진료 분야의 의료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특히 뛰어나며 성형외과의 대표적인 시술인 지방흡입과 이식술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한류 열풍에 따른 한류스타 모방 성형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성형관광이 명동, 강남, 부산 등의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류를 이용한 성형·미용 관광을 특화하여 중점 육성할 필요가 크다.

이와 함께 외과적 처치와 수술을 요하는 분야 중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대등한 기술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대한의학회, 2004).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위암·유방암 100, 폐·간·대장암 98, 흉부외과 96, 자궁경부암 94 등이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인공 와우·간·신장·골수·조혈모세포 등의 이식기술도 90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고혈압·당뇨·치질·백내장·뇌경생 등의 의료기술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암환자의 5년 생존율(완치율)은 위암 43.9% 간암 10.5% 자궁경부암 76.4%로 각각 미국의 23.3%, 8.3%, 7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학회, 2000).

이러한 분야는 장기적인 입원 및 간병을 위한 가족들의 입국 등을 수반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현재의 성형, 미용 일변도의 의료관광 상품 다변화 전략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유치대상국 별로 차별화된 수요층 발굴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시장분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육성

현재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여도 여행사나 의료컨설팅업체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진행하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관광객의 경우 일반관광객과 달리 입국 전부터 의료관련 정보의 제공 및 진료상담 등이 필수적이며 의료부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의료관광 유치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와 관광부문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의 육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여행사와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보험회사 등과 합작회사 형태의 전문 에이전시 설립 유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의료관광 컨설팅 업체와 연계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의료관광 전문통역사 양성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로 언어 소통 문제를 들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진 및 행정요원을 포함한 병원내 언어 소통문제가 외국인 환자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영어 및 기타 외국어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만큼 의료진이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할 경우 환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며 특히 영어권 외의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은 통역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적인 통역능력 뿐만 아니라 의학용어 및 질환에 대한 지식, 환자를 대하는 요령, 관광관련 지식을 고루 갖추고 진료와 관련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통역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휴스턴의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 병원 MD 엔더슨 암센터는 스페인어에서부터 아랍어, 타이완 방언인 하카어에 이르기까지 12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26명의 전문통역사를 두고 있다. 의료 전문 통역사는 의료진에게 환자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전달하는 한편,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지 않

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관광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라. 국제적 인력교류 지원

선진의료기술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사의 방문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이들 외국인 의사들이 고국에 돌아간 후 이들 의사들의 추천에 의한 외래환자 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척추전문 병원으로서 외래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리들병원의 경우 2005년도 해외 환자의 약 10%가 우리들병원에서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외국인 의사에 의해 보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 의사에 의해 추천된 경우 대부분이 수술로 이어지고 환자와 함께 환자 보호자들의 입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선진국과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해외병원과의 교류협정 확대 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의료기관간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지원, 국제적인 의료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국내병원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외국인 1년 전임의 교육과정의 경우, 비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3개월에 한번씩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발급을 재연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마. 의료관광 One-Stop Service Center 운영

의료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 과정은 현지국에서 정보입수 → 상품발견 및 방한 결정 → 입국수속 → 입국 → 의료관광(의료 +관광) → 출국 → 사후 관리(현지 치료 및 보험처리 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및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의료 및 관광관련 서비스제공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One-Stop Service Center 운영이 필요하다. 의료관광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 + 관광의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관광공사 내에 의료관광 One-Stop Service Center를 개설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출입국수속지원, 외국인대상 의료관광 전문병원 안내, 통역지원, 상담지원 및 콜센터 운영, 숙박예약, 보험업무 안내 및 처리 지원, 각종 서류 발급 지원(원무 서비스 관련), 관광 상품 안내 및 예약, 귀국 후 치료 지원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한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주변 경쟁국의 경우 외국인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환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입국에서부터 출국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수준 높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본 보고서 제4장 해외사례 분석 결과 참조).

3. 의료관광 서비스 수준 및 신뢰성 제고

가. 국제적 인증 추진 및 정부 인증제 도입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 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증제인 ISO 및 JCI 인증 획득을 촉진토록 할 필요가 크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2000과 ISO 14001 및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ation(국제병원평가위원회) 인증 획득은 그 자체가 한국 의료기관의 의료 기술 수준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확보로 이어져 의료관광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CIA 인증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58개 병원만이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1개, 터키 6개, 태국 1개, 싱가포르 2개, 인도 1개, 필리핀 1개 등 총 12개 병원이 인증을 획득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인증 병원이 없다. 국제적인 인증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들이 이를 추

진하기에는 초기 투자비용과 인증 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국제적인 인증 취득 추진과 함께 국내 병원 중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병원을 선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 한해 정부차원에서 지정병원으로 인증하는 국내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한다. 태국의 예를 보면 태국 보건부가 설립한 병원품질관리촉진위원회를 통해 자국 병원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별도의 '병원인증기준(Hospital Accreditation: HA)'을 마련해 태국 의료기관의 품질관리 향상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2003년 태국의 HA는 국제병원인증원(International Hospital Accreditation Institution)으로부터 미국의 품질관리기준과 같은 등급을 받게 되었다.

정부차원의 인증제 도입과 함께 분야별 전문병원에 대한 디렉토리 북 제작 등을 통한 인증병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로 실질적인 인증효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인증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협의회 구성 및 의료사고 보증보험의 개발 등 의료관광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한다.

나. 국가적 차원의 홍보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술 수준 및 가격 측면에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본 보고서 제3장 제3절 의료관광 잠재력 분석 참조)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관광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삼고 '의료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료관광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청심병원을 중심으로 일본인 대상 분만패키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러시아·연해주 지역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분만을 위해 미국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목적의 환자유인·알선 금지 및 광고제한 등 관련 의료법의 제약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관련 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병원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추진하기에는 비용 및 전문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관광프로모션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관광청이 주도적으로 병원과 연계하여 공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의료강국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크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매뉴얼 발간, 홍보 책자 및 CD롬 제작·배포,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종합적인 홍보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대체지역을 찾고 있는 수요처를 직접 찾아 나서는 의료관광 홍보 로드쇼 개최 및 의료관광 유치 여행사의 해외 유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 및 회의 등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저렴하고 수준 높은 건강검진, PET 검사, 암검사 등을 함께 프로모션하는 전략을 병행해 나가도록 한다.

다. 의료관광 종사자 서비스 교육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부가 서비스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의료문화의 상이성으로 인해 자칫 의료관광의 만족도가 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환자를 간호사가 주로 돌보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가 돌보아야 하며, 주치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 환자들의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위생에 대한 주의가 전신국에 비해 떨어지는 점, 예를 들어 간단한 시술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환자를 간호한 후 손을 씻지 않고 다음 환자를 간호하는 점 및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취약한 점 등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 및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관광 지정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상시 친절 교육 실시,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외국어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관광 대상 병원의 서비스 교육 참여 실태와 서비스 성취도 평가를 종합하여 의료관광 지정병원 심사시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등급에 따른 등급별 인증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4. 의료관광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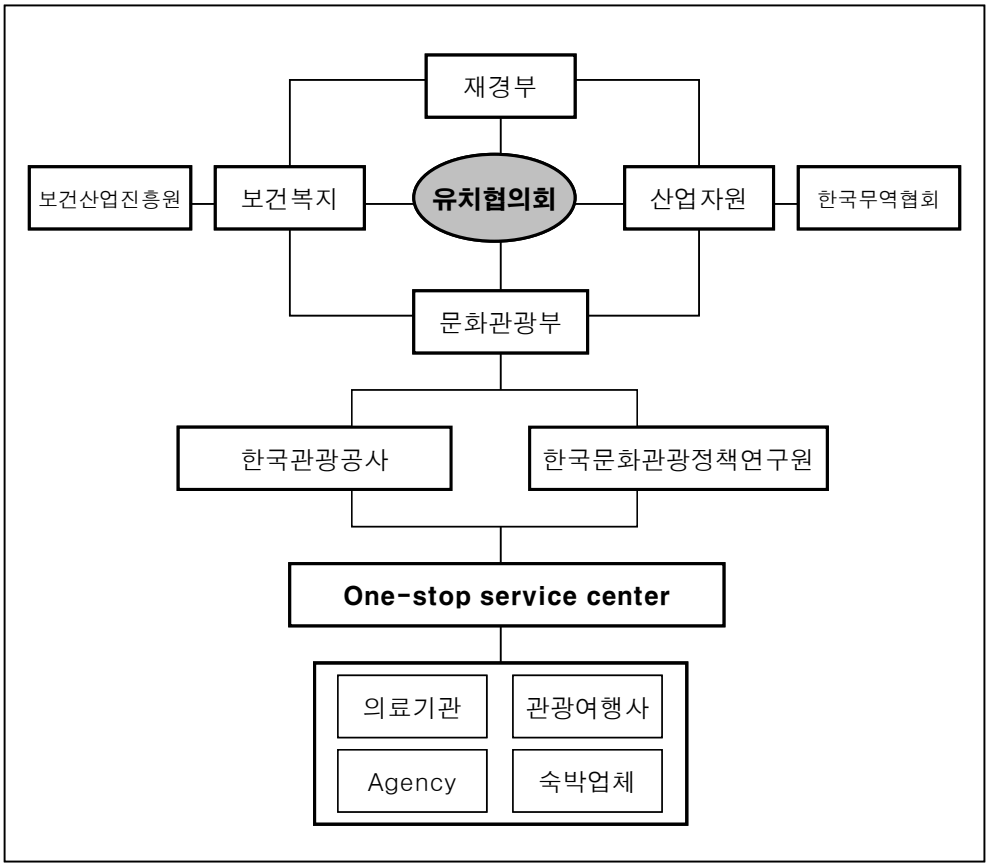
관광산업을 매개로 한 산업간 복·융합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를 핵심기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재경부 등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고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의료관광 유치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운영)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 Center'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실행조직으로서 관광산업 부문에서 관광여행사, 숙박업체, 전문에이전시, 의료기관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 및 협력해 나가야 한다.

주체별 기능 측면에서 문화관광부는 의료관광 지원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 사업기반 조성과 관련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및 통합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 관련 수요 조사 및 시장 분석을 통한 잠재시장 발굴 작업과 국가적인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편의서비스 제고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One-Stop Service Center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경우 세계적인 의료관광 트렌드 분석 및 해외 정보 수집,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지원 및 의료관광 관련 효과 분석 등 정책 추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한다.

[그림 13] 의료관광 추진 조직 체계



Ⅶ. 결론 및 제언

○ 관광행태가 다양화해지고 관광욕구가 다변화됨으로써 관광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 소규모적이고 소극적, 기호적 성향이 강해지고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

○ 관광객의 인식의 변화와 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더욱 복합화되고 전문화된 관광상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컨버전스, 산업간 융합, 소프트화 진전 등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침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음

○ 이는 사양산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산업이 고부가화 되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관광을 매개로한 산업간 복융합화는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관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산업의 신활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변 경쟁국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대규모 예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관광청과 경제개발위원회, 무역개발국이 공동으로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여 '아시아 의료허브'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광청의 경우

'Health Care'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태국은 수출진흥국, 관광청, 투자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병원협회의 치밀한 준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스파·마사지 등 건강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2005년 128만명의 해외 의료환자를 유치하고 330억 바트(약 8.9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렇게 각국이 의료관광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의료관광국 시장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이며 의료관광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인가? 과연 의료관광은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음

○ 본 연구는 주변 경쟁국가의 의료관광 추진 실태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의료관광의 성장가능성 및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잠재력 분석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관계당국과 업계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수행됨

○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행태를 의미하며 21세기 웰빙 및 건강추구형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의료관광객은 한 사람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출하며 체제기간도 일반관광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긴 것으로 알려짐.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우리의 주변 경쟁국들이 '의료허브'구축을 목표로 의료관광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바로 의료관광을 통해 관광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이끌고 고부가가치 신 시장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인식에만 사로잡혀 의료관광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병원의 환자 유치활동 및 수익다각화 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일반병원의 주식상장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병원이 호텔, 골프장 등과 연계하여 휴양인지 치료인

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가격과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의료관광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너무 미미한 실정임

○ 한류를 타고 미용, 성형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의료관광국으로서 우리의 강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잠재고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하여야함

○ 이와 함께 미용, 성형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암치료, 외과적 수술 및 진단 방사선과 같이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함

○ 세계적인 의료관광 시장의 잠재력은 무한함. 의료수준이 높은 아시아의 몇 몇 국가들만이 거대한 선진국 의료관광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우리도 빨리 뛰어 들어 그 거대한 블루오션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관광 지도가 다르게 그려지게 될 것임

참고문헌

강원발전연구원(2004), 생명건강산업과 웰니스관광
김재윤(2005),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컨버전스 이슈
남치호(1995), 지역산업과 연계한 경북북부지역 관광산업 육성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태국의 의료서비스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류열품의 실체와 기업의 전략적 활용방안
대한상공회의소(2005),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
대한의학회(2004), 의료기술 기술수준조사
무역연구소(2006),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과제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의료관광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
보건복지부(2006),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안)
삼성경제연구소(2006),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2005),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전경련(2006),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 인도, 태국,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전경련(2003),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
윤종수(2005), Fusion과 Convergenc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영주(2004),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관광에의 적용, 강원발전연구원
임영모(2004), 국내산업의 재도약방안 -0.5차 더하기-
이윤태(2006), 의료관광미래발전 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황(2006), 해외환자유치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우리들병원
의정연구센터(2004),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의료선진화위원회(2006), 제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기획단(2005),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계획
한국관광공사(2005), 외국의 의료관광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
한국관광공사(2006), 200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육성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보건관광자원 조사 및 상품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21세기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2), 한방헬스투어 방안 연구

한국전산원(2006), 컨버전스에 따른 미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과제

Majlis Bandaraya Melaka Bersejarah(2006), Generating and stimulating Health service excellence in Tourism industry among cities 세미나

저자약력

유지윤(柳志允)
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한국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관광학 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관광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문학 학사)

관광산업 복·융합화 촉진 방안

발행인 송 재 호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화 02-2669-6990 팩스 02-2669-6993~6
http://www.kctpi.re.kr
인쇄일 2006년 7월 28일
발행일 2006년 7월 30일
인쇄인 (주) 크리홍보